정의선 승계 또 악재

metro®
메트로 2015년 7월 27일 월요일 제3266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4일>

코스피 2045.96 (−19.11)

코스닥 776.26 (−0.73)

금리(국고채 3년) 1.71 (−0.01)

환율(원·달러) 1170.40 (+9.40)

말짱 도루묵?

삼성 '자사주 매입'에도 주가 추락 가속… 매수청구가 위험권
우선주 별도 주총 요구도 본격화… 엘리엇 공세 재개 가능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합병안 통과 후 양사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제일모직이 4400억원대의 자사주 매입 카드까지 내놓았지만 주가 추락세는 되레 심해졌다.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우선주 별도 주총 소집요구를 위한 지분 모으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우선주 지분을 발행주식의 3%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보유지분 1.5%이상을 모으면 소액주주도 우선주 별도 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합병안은 무효가 수 있다.

엘리엇매니지먼트도 이번 주중으로 '2차 공세'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합병 주총 이후 삼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지는 양상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물론 삼성전자, 삼성SDI 등의 주식까지 내다팔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주총이후 연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24일 삼성물산 보통주는 전날보다 1.86% 떨어진 5만8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물산 우선주는 1.12% 하락한 3만9900원에, 제일모직도 1.74% 내린 16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제일모직이 4400억원을 투자해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내놓았지만 주가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 것은 삼성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합병안이 통과된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6거래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2250억8100만원 어치의 삼성물산 보통주를 내다 팔았다. 제일모직의 순매도 금액도 980억6000만원에 달한다.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물산우선주도 외국인 순매도 상위권에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식도 대량 처분하고 있다. 지난주(20~24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순매도 규모는 2207억2200만원이나 됐다.

삼성도 뾰족한 해법이 없는 모습이다.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삼성이 설명한 합병 효과를 외국인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기업가치와 주주보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난 밀어붙이기 식 합병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삼성은 "뉴 삼성물산이 5년 뒤에는 매출 60조원, 세전이익 4조원을 달성해 주주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제일모직 자회사가 운영하는 바이오 사업이 향후 삼성의 주요 먹거리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삼성이 내놓은 뉴 삼성물산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면 2020년 바이오 사업의 예상 매출액은 1조8000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3% 수준이다.

지난해 33조5640억원(삼성물산 28조4455억원·제일모직 5조1296억원) 규모의 매출을 5년만에 60조원까지 성장시킨다는 계획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삼성물산소액주주연대 등은 이번주부터 삼성물산 우선주 별도 주총 소집 요구를 위한 지분 모으기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합병주총 주주명부 폐쇄일인 6월11일 기준 우선주 지분을 3%이상, 또는 6개월 이상 보유 지분 1.5%이상을 모으면 소수주주도 우선주 별도 주총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우선주 주총에서 참석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합병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합병 자체가 무효될 수 있다. 상법(435조, 436조)은 합병으로 인하여 우선주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면 보통주 주주총회 외에 우선주 주총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엘리엇도 이번 주 중으로 '2차 액션'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엘리엇이 주총에서 패배한 것 자체보다도 한국의 '반 외국인 정서'에 당황했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주총 이후 삼성물산 뿐 아니라 제일모직의 주가까지 빠지면서 명분을 어느정도 회복한 만큼 이번주 중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엘리엇은 열흘정도 남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를 지켜보면서 삼성SDI 이사진 등을 상대로 한 배임 등 소송전 확대로 장기전에 대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발칵 뒤집힌 변호사 업계

대법원 형사사건 성공보수무효판결 파장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변호사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원발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변호사, 특히 판·검사 출신 전관들의 밥그릇을 건드린 형국이 되면서 반발이 만만찮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판결을 파기하라"는 성명을 냈다.

성공보수 약정은 변호사가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경우 의뢰인이 착수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로 일제시대 이후 100여년 동안 유지돼온 뿌리 깊은 법조 관행이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주요 수입원으로 통해온 데다 한도도 정해지지 않아 수억~수십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빈번해 논란이 돼 왔다. 대법원의 판결이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척결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3일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니 이를 돌려달라며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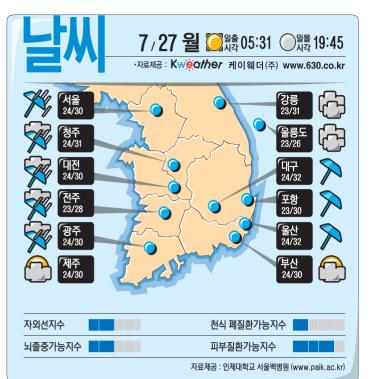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 103조에 의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이에 따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23일 이후부터는 체결하더라도 무효라서 지불할 의무가 없다.

변호사단체는 "사법 불신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판결을 조속히 폐기하라"며 집단 반발했다. 판결 직후 대한변협이 회원 1만6495명을 대상(응답률 2920명)으로 '대법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에서도 '전적으로 반대한다', '대체로 부정한다'는 답변이 80.1%(2307명)에 달할 정도로 부정의견이 우세했다.

서울 서초동에 개업한 한 변호사는 "변호사로서는 모욕적인 판결"이라며 "성공보수금을 없애면 착수금이 더 오를 수 밖에 없다. 수임료가 높아지면 결국 서민층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정치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6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보다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5차 혁신안에서 "현재의 정당구조는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369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 27일부터 닷새간의 여름휴가에 들어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기간 청와대 관저에서 휴식을 취한다. 참모진들이 대통령 휴가 기간을 이용해 번갈아가며 쉰다.

▲ 국정원이 자살한 임모 과장이 생전에 삭제한 파일의 복구를 마치고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가정보원의 내국인 대상 **해킹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본격화된다.

▲ 국가정보원의 **불법 해킹 프로그램** 구매 의혹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사기를 꺾지 말라며 국정원을 옹호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의 호위무사가 되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여야의 공방이 거듭 이어가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인세** 정비 문제에 대해 "(세금인상분을) 충분히 분담 가능한 상위 재벌 대기업에 대해 조금 법인세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

▲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변협이 "판결을 파기하라"는 성명을 내는 등 변호사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 세계대학랭킹센터(CWUR)의 2015년 **대학 평가 순위**에서 서울대가 작년과 똑같이 세계 24위를 차지했다. 이어 연세대(98위)는 작년보다 순위가 9계단 올라 100위권 내에 진입했고, 고려대(115위), 한국과학기술원(KAIST, 144위), 포항공대(포스텍, 165위), 한양대(192위) 등이 200위 안에 들어갔다.

▲ 경찰청이 최근 발간한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10.1명에서 2014년 9.4명으로 감소해 1974년 이후 40년만에 처음으로 한자릿수대를 기록했다.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되는 화학물질과 유해 정보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을 운영한다.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차주와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과다·허위 청구한 혐의(사기)로 외제차 전문 수리업체 대표 김모(40)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와 공모한 웨딩카 대여업체 대표 김모(27)씨와 보험사 직원 박모(41)씨 등 공범 30명은 사기 또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제·산업

▲ 최근 현대자동차그룹 건설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에 착수하고 추후 금융감독원까지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우선주 별도 주총 소집요구를 위한 지분 모으기를 본격화하는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코스피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주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이 1.16% 하락했다.

▲ 통계청 조사결과 올해 상반기 20~29세 **실업자**는 41만명으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 재벌닷컴 조사결과 올해 대형 기업들이 실적 부진 등으로 국내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은 23일 현재 679조6천억원으로 집계돼 개월도 안 돼 40조원이나 허공으로 날아갔다.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 밑으로 뚝 떨어졌다.

▲ 금융정보업체 와이즈에프엔 조사 결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신용융자 잔고 금액**은 지난 24일 기준으로 8조286억원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빚을 내 투자한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섰다.

▲ 수출입은행이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정의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시중은행의 여신은 올 상반기에 줄어들었지만 산업은행은 2조338억원에서 4조1066억원으로 도리어 늘렸다.

▲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63)과 두 아들이 BGF리테일과 BGF캐시넷(이하 캐시넷)의 합병·주식교환으로 얻는 차익이 100억원을 넘겼다.

▲ 최근 구더기 액상분유 논란에 이어 이유식에서 벌레 나오는 등 **이물 사고**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자 식품업계가 제품 단속에 나섰다.

▲ 지난 10일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HDC신라면세점(공동대표 양창훈·한인규)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대표 황용득)가 내년 초 예정된 개점 일정을 앞당겨 올해 말 용산과 여의도에 개점할 계획이다.

거품? 대세? 내년 11월 8일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 경선에 나선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내 압도적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다. 25일(현지시간) 공개된 이코노미스트 및 유고브 공동 여론조사(7월18~20일·1000명)에서도 트럼프는 지지율 28%로 1위를 차지했다. 2위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 14%보다 두배나 높은 지지율이다.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13%),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벤 카슨(7%), 랜드 폴 켄터키 상원의원(5%),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과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각 4%) 등이 뒤를 이었지만 트럼프와는 게임이 안되는 상태다. /AP뉴시스

국제

▲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 도전장을 던진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재직시절 개인 서버로 주고 받은 이메일을 조사한 감찰관들이 "3만여 건의 이메일을 전수 조사할 경우 기밀을 포함한 이메일이 수백 건에 이를 수도 있다"고 미 의회에 보고했다고 AP통신 등이 26일 전했다.

▲ 중국 대형 여행사인 완다(萬達)와 온라인 여행사인 퉁청(同程)이 공동으로 100일 안에 10만명의 **유커**(중국인 관광객)를 한국에 보내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중국 차이나데일리가 26일 보도했다.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앞으로 대주주의 지분 축소 및 새로운 시장조작 행위, 내부자거래 행위 등에 대한 감독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며 이미 50건 정도의 규정 위반 사례를 수집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신화망이 26일 보도했다.

▲ 26일 오전 11시께 일본 도쿄 조후시의 주택가에 5인승 **경비행기**가 추락해 3명이 사망하고 주택 3채와 차량 2대가 불에 탔다고 경시청이 밝혔다.

▲ **그리스**에 대한 860억 유로(약 109조8000억원) 규모의 3차 구제금융 협상이 유럽집행위원회(EC),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채권단 대표들의 지각 도착 탓에 애초 예정보다 하루 뒤인 28일(현지시간)에 시작될 예정이다.

▲ 미국 뉴욕 주(州)에 이어 뉴저지 주 상원의원 2명이 주내 **네일살롱** 종업원을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조건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주법 제정을 24일(현지시간) 제안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 보도했다.

▲ 영국 미디어그룹 피어슨이 파이낸셜타임스(FT)를 닛케이에 매각한 데 이어 172년 역사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소유한 '이코노미스트 그룹' 지분 50%를 매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면 대금은 약 4억파운드(약 720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킹팀사 유출 직후 국정원은 뭘 했나

해킹팀사 "유출 즉시 도·감청 자료 보호조치 안내"

국가정보원에 해킹프로그램을 판매한 이탈리아 해킹팀사는 회사 시스템이 해킹당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국정원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게 도·감청 자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안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언론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기 훨씬 전에 국정원이 도·감청 자료에 모종의 조치를 취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의 비지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해킹팀사 CEO인 데이비드 빈센제티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킹팀사는 7월 6일(현지시간) 오전 3시15분쯤에 (해커의) 공격 사실을 알게 됐다"며 "나는 즉시 회사 기술자들에게 모든 시스템을 오프라인 상태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또 즉시 모든 고객들에게 알려 도·감청 자료 보호를 위해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자료 보호를 위해서는 해킹팀사가 아닌 고객이 직접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해킹팀사 기술을 이용해 (도·감청) 수사를 하는 것은 고객들이지 해킹팀사가 아니다"라며 "그들이 수집한 도·감청 자료는 고객의 컴퓨터 시스템에 보관된다. 해킹팀사가 해킹 공격을 당해도 고객들이 수집한 수사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해킹 공격의 범위를 (해킹 당시) 즉시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예방조치를 취하라고 안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400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해킹팀사 유출 자료는 해커가 5일(현지시간) 해킹 직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만 해도 한국 국정원이 해킹팀사의 고객이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정원 이야기는 외신이 먼저 보도했고, 국내 IT 전문지 일부가 외신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국내·외에 알려지게 됐다. 7일과 8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본격적으로 국내에 알려진 때는 웹개발자 이준행 씨가 이슈화하기 시작한 9일이다. 국내 일간지의 관련 보도는 이후에 시작됐다. 유럽의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유출 자료의 검색툴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쯤이다. 정확히 9일(현지시간)이다.

이탈리아는 우리 시간보다 7시간이 늦다. 국정원은 한국시간으로 오전 10시 이후 해킹팀사의 안내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국정원 해킹이 이슈화되기 전 국정원은 최소한 2~3일 동안 모종의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셈이다. 이 기간 국정원은 침묵을 유지했다.

국정원 해킹이 이슈화된 이후에도 국정원은 비공식적으로 해킹프로그램 구매는 "대북용"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의 공식 해명은 14일 국회 정보위 보고를 통해 나왔다. 이때 이병호 국정원장은 "해당 프로그램은 대북정보, 해외전략 수립 및 연구용"이라며 야당의 현장조사 요구를 수용했다.

해킹프로그램을 직접 구매하고 운용한 임모 과장이 자살한 것은 4일 뒤인 18일이다. 임 과장은 유서에서 "오해를 일으킬"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임 과장이 삭제한 자료를 24일 100% 복원했다며 27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임 과장은 4월 타부서로 전출됐고, 자료 삭제 권한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삭제 권한도 없는 그가 어떻게 자료를 삭제할 수 있었을까. 또 그가 타부서로 전출된 상황에서 누가 6일 해킹팀사의 안내를 접수하고 조치를 취했을까. 복원된 자료의 검증 문제와 함께 국회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언론계 '영일동맹' 일본의 경제지 닛케이(니혼게이자이)가 24일자 조간을 통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 인수 사실을 알렸다. FT는 미국의 월스트릿저널(WSJ)과 함께 세계 경제지의 양대 산맥이다. 이번 인수는 아시아언론이 처음으로 서구의 대형 유력지를 사들였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일본이 세계적인 언론권력을 손에 넣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20세기 초 일본이 영일동맹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일을 상기시킨다. WSJ에 따르면 기타 쓰네오 닛케이 회장은 "FT의 보도 방식을 바꿀 의도는 없다"며 "FT 사설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시아와 서구사회를 아우르는 거대 언론권력의 탄생은 일본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내년 6월 실시"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내년 6월에 실시할 것이라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인디펜던트 단독보도에 따르면 캐머런 총리는 올해 10월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조기 국민투표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6년 6월 실시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것이다.

인디펜던트는 그 이유에 대해 그리스 사태에서 나타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통합 노력, 2017년 실시되는 프랑스 대선과 독일 연방 선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탈퇴시 영국의 경제위기를 잘 부각시키고 이슈화 하기에 적기라 영국의 협상력을 최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송병형 기자

새정치연합 "재벌 대기업만 법인세 인상"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 대상을 재벌 대기업으로 특정했다.

최재천 신임 정책위의장은 2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저희는 모든 법인의 법인세 인상을 요청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잘 나가는 재벌 대기업들이 감면받는 법인세 4조~5조원을 걷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재벌 대기업의 감면액은 조세 감면 규모의 60%라는 점을 들며 "사내 유보 및 투자 여력조차 없다면 우리 논리가 잘못된 것이겠지만 지금 재벌은 계속 곳간에 자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곳간에 돈을 쌓아놓는 재벌들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고 보수·진보, 여야를 떠나 지속 가능한 한국사회를 위해 해야 할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정원 기자 garden@

"금감원 '권력남용' 우려"

내달부터 사법경찰권 발동
거대 권력기관으로 거듭나
'제2 공정위' 양산 가능성도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증권범죄를 막기 위한 사법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되자 금감원이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조사권에 이어 수사권까지 거머쥔다면 또다른 거대 권력 집단으로 거듭나 기업을 상대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폐해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또다른 권력집단을 양산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법안은 각종 금융 불공정 행위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차원에서 검찰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한 변호사는 "금감원이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그 자체로도 파괴력을 갖는 권력기관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처럼 금감원도 사법경찰권을 갖게 됨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기업 총수가 죄의 유무를 확정받기도 전에 공정위의 고발과 검찰 소환 조사 만으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해 기업들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은 올해 들어서만 26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서 자의적으로 물리는 과징금이 공권력 남용이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에 사법수사권이 발동되면 공정위의 이 같은 폐해를 답습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 지점과 궤를 같이 한다.

금감원이 조사권만 갖고 있는 현재도 사실상 권력을 쥐고 있다고 판단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유리한 조건으로 워크아웃이 진행되도록 채권은행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조영제 전 부원장도 같은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이 조사권에 이어 수사권까지 발동될 경우 이보다 더한 권력 남용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대법 "재항고장, 법정기간 내 법원 도달해야 인정"

재항고장이나 즉시 항고장은 법정 기한에 법원에 도착해야 인정된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재항고장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출하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내는 것을 말한다.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재소자 A씨가 제출기한을 넘겼다고 법원이 자신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즉시 항고한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 관련자를 검찰이 불기소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결정문을 받게되자 다시 불복해 당일 교도소장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항고장은 보름만에 법원에 도착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재항고는 3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돼 있다. 법원과의 거리에 따라 법정기간을 200km에 1일씩 연장해 주고있지만, 이런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법정 제출기한이 지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항고권이 소멸된 뒤 재항고가 제기됐다고 보고 기각했다.

A씨는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상소장 이외의 서류는 이런 특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재항고는 서류가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을 준수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미란 기자 actor@

유아용 선크림 (아비노 베이비 내추럴 프로텍션 선블록 로션, 궁중비책 한방 선케어 라인' 5종, 아가방 '에코뮤 선크림'세트).

휴가철, 유아 전용 선크림으로 연약한 아기 피부 보호 하세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랜만에 떠나는 바캉스에 마음이 들뜨기 마련이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제대로 보내려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경우가 많다. 그중 유아나 어린이들의 피부 보호를 위해 발라주는 선크림은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서 잘 알고 사용하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음에 소개되는 유아전용 선크림을 통해 자외선 차단제의 기능과 사용법을 알아보자.

◆궁중비책 '궁중비책 한방 선케어 라인' 5종

'궁중비책 한방 선케어 라인'은 선크림, 선로션, 선미스트, 선터치, 선팩트로 구성돼 아이의 다양한 야외활동 상황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도록 세분화 했다.

특히 아기가 재미있고 쉽게 직접 두드려 바를 수 있는 애플리케이터 형 선로션 '토닥토닥 선터치 SPF45 PA+++'와 손에 묻히지 않고 간편하게 톡톡 두드려 바를 수 있는 팩트형 선크림 '톡톡크림 선팩트 SPF45 PA+++'의 경우 궁중비책이 유아 화장품 업계 최초로 선보인 특화 아이템이다.

이 밖에도 젖은 피부에도 잘 발려 야외놀이, 물놀이 시에도 사용하기 좋은 '보송보송 선로션 SPF50+ PA+++'과 뿌려쓰는 바디 한방 선미스트 '살랑살랑 선미스트 SPF50+ PA+++', 저월령 아기나 민감성 피부에 적합한 저자극 '보들보들 선크림 SPF35 PA+++'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자녀의 야외활동 타입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궁중비책 선케어 라인은 대형마트, 제로투세븐닷컴(www.0to7.com) 및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아가방…유아용 천연 자외선 차단제 '에코뮤 선크림'

아가방앤컴퍼니는 올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연약한 아기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유아용 천연 자외선 차단제'를 추천했다.

'에코뮤 선크림'은 자외선 A와 B를 동시에 차단해 주는 제품으로 뛰어난 보습력과 진정효과까지 갖췄다. 일곱 가지 순한 어린 잎을 21일간 세 번 발효시켜 만들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개봉 후 사용기간이 짧은 시즌 상품의 단점을 없애기 위해 30ml 소포장 3개 세트로 구성됐으며, 휴대가 간편해 외출 시 언제 어디서나 바르기 좋다. 가격 1만9000원.

'퓨토 시크릿 선스크린'은 SPF 30 PA++의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갖춘 제품이다. 물 대신 100% 천연약용추출물을 사용하고, 보습 성분인 세라마이드, 베타글루칸을 함유해 피부 깊숙이 영양과 수분을 공급한다. 오일프리(Oil free) 제품으로 여러 번 덧발라도 끈적이지 않고 촉촉하다. 가격 2만9000원.

◆아비노 베이비 내추럴 프로텍션 선블록 로션

아비노 베이비 내추럴 프로텍션 선블록 로션의 특징은 아토피 있는 아기 피부에도 안심하고 발라주는 '오트밀 보호막'을 형성해 준다. 피부 진정 효과가 탁월한 오트밀 성분을 함유하고있어 건조해지기 쉬운 아기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 준다.

피부 자극이 적은 천연 무기질로 이뤄진 차별화된 미네랄 성분 포뮬러가 아기 피부에 보호막을 만들어 자외선(UVA, UVB)을 반사시킨다. SPF30, 84g, 2만3000원.

/최치선 기자 chisunti@

대통령 막강 권한 '특별사면'… 외국은?

미국, 클린턴 대통령 이후 사면 승인율 3%로 하락
유럽 '적격성 심사', 국회·법원 견제 등으로 통제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특별사면을 시행키로 한 가운데 다른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특별사면을 하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별사면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절차적·실체적 통제규정이 전혀 없어 정권마다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사면권 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특히 고위층 비리사범과 대기업 경영인, 정치인 등이 주로 특별사면 대상자라서 대상 선정에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문제가 늘 있어왔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특별사면 절차와 사례는 어떨까.

일단 특별사면은 군주제의 유산답게 대통령 등 국가원수의 권한이 강한 나라일수록 사례가 많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우리나라와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실형 선고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사면 청원서를 낼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은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하는 데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1969~1974년 재임 중 신청 받은 사면 가운데 무려 50.8%를 승인하는 등 무제한으로 사면권을 남발했다. 닉슨 전 대통령 본인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 자리에 물러난 직후 후임인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 됐다.

2001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 140건의 특사를 무더기로 단행했다. 코카인 소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이복동생 로저 클린턴과 탈세혐의를 받고 스위스로 도피 중이던 석유재벌 마크 리치 등이 포함됐다.

과도한 특별사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면서 클린턴 정부를 기점으로 사면 승인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부시 행정부에선 7.6%, 오바마 행정부에선 3.4%까지 낮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전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지원기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 박수치고 있다. 허창수(왼쪽부터) GS그룹 회장, 박근혜 대통령, 김선일 대구혁신센터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 임종태 대전혁신센터장. /뉴시스

일본의 경우 헌법과 은사권(恩赦權)에 근거해 사면을 실시하며, 우리나라의 특별사면과 유사한 제도로 개별은사를 두고 있다.

개별은사는 법무성에 설치된 '중앙갱생보호심사회'가 신청자에 대해 실시한다. 우선 교도소장·보호관찰소장·검사의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중앙갱생보호심사회에 상신(윗사람이나 관청 등에 일에 대한 의견이나 사정 따위를 말이나 글로 보고)이 이뤄진다. 이후 법무대신에 신청하고 내각 각의를 통한 은사 결정과 천황의 인정, 공포로 사면이 실시된다.

일본은 '은사법 시행규칙 제6호'에 의해 일정 수감 기간이 경과하지 않을 때 특별사면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기징역과 금고에 대해서는 그 형기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이 지나야 한다.

반면 국가원수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한 유럽 국가들은 특별사면권 행사에 제한이 많다.

사면이 가장 엄격하게 이뤄지는 나라 중 하나가 독일이다. 독일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한 심사를 통해 특별사면을 행한다. 독일연방기본법 제60조와 독일 형사소송법 제45조에 따르면 연방사건에 대해서는 연방 대통령이, 기타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주지사가 사면을 행한다.

최종적으로 사면 결정이 되면 사면 관청은 당사자에게 결정 내용을 공지한다. 사면은 일정한 의무 부과를 조건으로도 가능하며,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철회하거나 반려하는 것도 가능하다.

프랑스는 일반사면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국회에 전속시켜 국회의 입법사항으로 하며, 대통령은 특별사면권만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특별사면이라도 독단적으로 사면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의 사면 요청, 사면절차에 따른 사안조사, 법무부 담당부서의 행정 처리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핀란드 역시 대통령이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할 때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견제하고 있다.

/이홍원 기자 hong@metroseoul.co.kr

"범죄자 양산하는 저작권법, 친고죄로 환원돼야"

| 인터뷰 | 윤소라 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부장

"로펌, 합의금 장사로 부당이익 챙겨"

합의금을 노린 저작권 관련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있다. 애초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2006년 추가된 '비친고죄' 규정으로 제3자에 의한 처벌이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하루 4000여명에서 연간 150만명까지 악용 사례로 인한 피해 사례가 넘쳐나고 있다.

윤소라 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부장이 "저작권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범죄자를 양산하는 현행 저작권법을 친고죄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 부장은 26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저작권법에 대해 이같이 지적한 뒤 단서조항인 비친고죄 항목이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과 생산적 유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펌 등의 무차별적 저작권 위반 행위 고발이 매년 증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윤 부장은 "로펌 등에서 '형사사건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로펌이 합의금 장사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2007년에는 로펌으로부터 이 같은 합의금 독촉에 시달리던 고등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이후 비친고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지난해에는 소관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피해규모 100만원 이상일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을 만들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정부는 한미 FTA를 근거로 저작권을 비친고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꿈쩍않고 있다.

윤 부장은 이와 관련, "한미FTA는 한국어본과 영어본을 정본으로 하고 있다"며 "각국의 언어로 해석하라는 의미인데 일각에서 영어본을 근거로 'should(~을 해야 한다)'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친다. 지나친 사대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국이 직권으로 소송을 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비친고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해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판례로 '친고죄라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소송을 기소로 한정할 경우 미국에서 한국인의 저작권이 위반될 경우 어떤 법적 처분도 기대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

윤 부장은 "전문성을 요하는 법안일수록 소속 의원들보다 전문위원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위원이 이해단체의 집중 로비 표적이 돼 사실상 입법권 행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미란 기자 actor@

日 강제동원조사위 12월 해산 위기

유족들 절박한 서명운동 벌여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소녀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조사하는 국가기구가 올해 12월을 끝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특별법이 위원회의 존속 기간을 2015년 12월 말까지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전시회를 열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상설화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26일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올해 말 활동을 종료한다.

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관련 자료는 행정자치부로 넘어가지만 행자부는 전문성이 없어 일본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발굴 등 주요 업무가 사실상 끝나는 셈이다.

행자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을 설립해 위원회 업무 일부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 위원회는 국가기관인 반면 재단은 민간단체여서, 강제동원 피해 여부를 공식 인정할 권한이 있는 기구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재단은 설립절차 등이 문제돼 지난 2월 서울 행정법원에서 설립허가 무효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아태평화교류협회와 '일제강점하 사할린 강제동원 억류희생자 한국유족회'(사할린유족회)가 지난 5월부터 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들은 "희생자 피해조사와 진상규명, 유골 봉환 등을 위해서는 10년여간 이 일을 전담한 위원회의 존속이 절실하며, 위로금 신청 등도 기한을 정할 것이 아니라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로또복권 제660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4	9	23	33	39	44	14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421,272,575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49,349,743
3등	5개 숫자 일치	1,214,141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SK 날개단 창조경제 '벤처의 꿈' 비상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드림벤처스타' 데모 데이

1기 졸업 10팀 의미있는 성과 도출
SK의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큰힘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앞줄 왼쪽 다섯 번째) 과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 의장(왼쪽 네 번째), 장동현 SK창조경제혁신추진단장(왼쪽 세 번째), 임종태 대전센터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등이 23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드림벤처스타의 데모 데이에서 벤처기업 대표들과 함께 힘찬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SK 제공

"SK그룹의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큰 힘이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큰 행운이었죠."

23일 대전광역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위치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대전센터)에는 1기 과정을 마친 10개 벤처기업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 데이' 행사를 위해서다.

대전센터에서 지난 10개월 동안 '대박신화'의 꿈을 키워온 이들의 얼굴에는 미소와 함께 자신감이 묻어났다. SK그룹과 대전센터의 전폭적인 지원속에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1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이들은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냈다. 벤처기업 매출은 18억1000만원을 기록, 입주 전(3억2000만원)에 비해 5.6배 증가했다. 매출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입주 벤처기업의 임직원도 41명에서 71명으로 70% 이상 늘었다.

이 같은 성과에 고무된 벤처업체들은 이미 더 큰 도약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빠른 시간에 기술력을 인정받은 이들은 "SK 그룹과의 협업이 큰 힘이 됐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성호 씨메스 대표는 "대전센터에 들어와 프레젠테이션부터 시작해 노무, 회계 투자 등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다양하게 배웠다"며 "사업 초기에 금융지원을 받은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SK그룹이 주도한 대전센터는 리스크 프리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지원했다. 향후 사업성과가 나면 빌린 돈을 갚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못 갚아도 책임을 묻지 않는 시스템이다.

'산업용 3D 스캐너' 검사장비 업체 씨메스는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인 콘티넨탈에 1억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며 기술력을 과시했다. 브라질과 루마니아 공장에도 메스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추가 수출 가능성이 높다.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에도 검사장비 납품을 눈앞에 두고 있다.

SK그룹의 지원을 받아 해외 시장에서 큰 인지도를 쌓은 업체도 있다. 나노분광센서를 만드는 나노람다코리아는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 SK텔레콤과 동반참석하면서 다수의 해외고객를 확보했다. 행사 참가 경비는 모두 SK그룹이 부담했다. 현재 20여개국 70여개 업체가 나노람다코리아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와도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일 나노람다코리아 대표는 "단독으로 국제가전박람회(CES)에 참가했을 때는 구석 부스에서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다"며 "그러나 SK텔레콤 부스에 들어간 MWC에서는 방문자 수 자체가 달랐다"고 웃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연구원 출신인 박지만 엘센 대표도 대전센터에서 꿈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연구 밖에 몰랐던 박 대표는 센싱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이를 제품화하는데 필요한 응용 기술과 정보, 노하우가 부족했다. SK하이닉스가 기술자를 박 대표에게 붙여 생산과정에서 체득한 경험을 공유하고,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공유했다.

박 대표는 "연구만 하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술만이 최고인줄 아는 경우가 많다"며 "나 역시 대전센터에 오기 전까지는 사업에 대한시야가 좁았다. 이곳에서의 멘토링이 큰 도움이 됐다"고 흡족해 했다.

체온에서 나온 열을 전기로 전환하는 열전소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테그웨이는 지난 2월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의 그랑프리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이경수 테그웨이 대표는 "대전센터에서 경영 지도부터 자금지원 등 많은 부분을 도와주었다"며 "SK그룹이 마케팅 노하우를 스타트업과 협업 해줘 이제 세계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비디오팩토리 SK이노파트너스의 도움을 받고 미국 실리콘벨리에서 주목받는 업체가 됐다. SK이노파트너스는 SK그룹이 미국에서 유망 벤처를 발굴하기 위해 운영하는 창업투자기획사다.

SK이노파트너스는 비디오팩토리가 실리콘 밸리에서 진행되는 투자 전시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중개했다. 이 결과 지난 달 유명 벤처창업 기획사인 '플러그 앤 플레이'로부터 사무실과 멘토링 무상 제공 제안을 받았다.

한편 SK는 앞으로도 이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 의장은 벤처업체 부스 10곳을 일일이 돌아보며 제품과 기술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대전=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이마트 '갑질'… '앉아서 쉰' 알바생 재취업 거부

이마트 여수점, 장시간 서서 일한 알바생, 쉬었다고 '블랙리스트'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서서 일하는 근로자 위한 의자 갖춰야"

신세계그룹(부회장 정용진) 이마트(대표 이갑수)가 장시간 서서 일한 매장 아르바이트생이 잠시 앉아 휴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로 분류, 재취업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라남도 여수시에 거주하는 김 모(25)양은 지난 3월 이마트 여수점에 아르바이트 지원서를 제출했다 '블랙리스트' 대상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당했다.

김 양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사유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거부당했다"며 "일주일에 800만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으며 당시 칭찬도 받았었다. 취업 거부 사유라고 하면 지난달 매장에 근무하며 잠시 앉아 쉬다 지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일 때문이라면 이마트는 다음부터 사람이 아닌 기계를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양은 지난 2월 설대목에 이마트 여수점 양주판매대에서 10일간 행사도우미로 근무했다. 근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9시간이었다. 행사기간 중 휴일은 없었고 식사시간 외에 따로 휴식 시간도 없었다. 시급은 7000원으로 10일 동안 60만원을 받기로 이마트 측과 계약했다.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던 김 양은 손님이 적은 시간에 매장 인근 청소를 하는 직원들의 휴식공간에서 잠시 앉아 쉬었다. 하지만 당시 이를 목격한 이마트 가공 매니저는 김 양을 향해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 근무하라고 했으며 김 양은 10분의 휴식 시간도 가지지 못하고 매장으로 돌아가야 했다.

여수시 오림동 버스터미널 건너편에 있는 이마트 여수점.

휴게실은 4층이라 김 양이 근무한 지하 1층 식품코너에서 10분가량 걸려 너무 멀었고, 매장에는 의자가 없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 80조에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가끔 이용할 수 있는 의자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마트는 이를 지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휴게소에 설치된 의자에 잠시 앉은 근로자를 취업불가 대상으로 규정하기까지 한 것이다.

당시 김 양은 일주일간 82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인센티브로 4만원을 받았다.

이마트 여수점 관계자는 "매니저 개인적인 판단으로 취업을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작성하는 지는 자세히 모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와 '앉을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의자 놓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판매·계산 업무 등으로 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는 2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경우 요통, 하지정맥류, 무릎과 발의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현 기자 minus@

제주도에서 가장 탐나는 자리인 서귀포 혁신도시와 강정택지지구 사이 –
세계 8대 호텔체인이 드리는 글로벌 호텔의 고수익 투자가치를 잡으십시오

밸류호텔월드와이드 서귀포JS 분양개시

다 드립니다

부대시설 : 실내수영장 / 사우나 / 휘트니스 / 고급컨벤션 /카페 테라스 / 호텔뷔페

Value Hotel Worldwide by Vantage
Seogwipo JS

- ☑ 10년간 안전보장(공증)
- ☑ 10년간 연 15% 수익보장 (대출 50%기준, 이자5%이내 포함)
- ☑ 10년간 대출이자 전액지원
- ☑ 준공 후 100% 환불보장 (5년 후 부터 적용)

서귀포시청 제2청사
헬스케어타운
서귀포관광미항
종합경기장
천지연폭포
서귀포 혁신도시
월드컵경기장
이마트
강정택지지구
중문관광단지
강정 민군 복합미항

年10% 10년간 수익보장
年5% 10년간 이자지급
안전보장 공증
분양가 100% 환불
50% 중도금 무이자

서귀포 혁신도시 9개 공공기관 이전, 연 15% 확정수익 [대출 50% 기준, 5%이내 이자포함], 세계 8대 호텔체인의 운영노하우

제주의 모든 가치를 담은 고수익 호텔–밸류호텔월드와이드 서귀포JS

FUTURE OF ISLAND
위치가 그대로 투자수익으로 이어지는 제주 최고의 자리!
서귀포 혁신도시 앞에 미래가치가 집중됩니다

INVESTMENT OF ISLAND
최대 연 15% 확정수익을 드리는 고수익 호텔!
제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선사합니다

HIGHCLASS SERVICE
세계 8대 호텔그룹의 운영노하우와 서비스!
세계적인 전문 운영·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 약 금 안 내
청약계좌 : 외환은행 630-009732-071
청약금 : 100만원 예금주 : 아시아신탁(주)

02)2097-8850

| 시행사 | (주)진성인터내셔널 | 시공사 | | 신탁사 | | 운영사 | 밸류코리아 | 마케팅사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가 하락 방어 '비상'

외인주주들, 연일 매도물량 쏟아내며 압박나서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 하락 방어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금리인상 전망에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은 연일 매도물량을 쏟아내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압박 중이다. 삼성물산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가에 근접해 있고, 제일모직은 '자사주매입'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효과는 요원해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주가방어를 위해 어떤 카드를 동원할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 대비 1.86%(1100원) 내린 5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물산 주가가 6만원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합병안이 발표된 5월26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장중 한때는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인 5만7234원에서 불과 666원 높은 5만79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같은 날 제일모직 주가는 전일대비 1.74%(3000원) 떨어진 16만9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마찬가지로 합병안이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17만원선을 반납했다.

지난 한주 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는 각각 6.60%, 5.31% 하락했다. 특히 외국인 매도세가 이들 주가 하락을 견인했는데 지난주 외국인은 삼성물산 주식 1327억7900만원 어치, 제일모직 주식 653억2200만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 자사주 취득도 '무위'

제일모직 주가는 합병이 통과된 지난 17일부터 현재까지 12.62% 하락했다. 이에 제일모직은 주가안정 방안으로 오는 10월23일까지 4400억원 규모의 자사 보통주 250만주를 매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대와는 다르게 공시 다음날인 24일, 제일모직은 자사주 취득 소

식에 장 초반 1%대 강세를 보이다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다. 삼성물산 주가도 장 초반 강보합세에서 하락 반전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다음 날 2.09%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자사주 매입 이슈보다 양사의 2분기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일모직의 2분기 매출액은 1조3115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91억원으로 전년대비 40% 감소했고, 당기순손실은 264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삼성물산 역시 2분기 매출액 6조3000억원, 영업이익 757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5.7%, 47.9%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지수 흐름이 좋지 않은데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실적도 부진해 자사주 매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자사주 매입보다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부각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 주식매수청구 기한 내 줄다리기 예상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일모직의 자사주 취득에 따라 오는 8월6일 주식매수청구 기한까지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주가 하락을 막으려는 제일모직 측과 외인 매도의 줄다리기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삼성물산도 주가가 매수청구권 행사가격에 근접함에 따라 추가하락을 막기 위해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일모직의 자사주 취득 결정으로 내달 6일 주식매수청구 기한까지 거래량 증가가 예상된다"며 "삼성물산의 주가가 매수청구기준가격에 근접함에 따라 매수청구 기한까지는 제일모직의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이 예상되고, 합병 가결 이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는 합병비율 1:0.35로 움직이면서 삼성물산 주가가 제일모직 주가에 연동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이어 "임시 주총 이후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당시 합병 반대 지분율은 25.5%였다"며 "양사 합병 시너지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보는 투자자들은 앞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삼성물산은 아직 주가방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다만 오는 30일 삼성전자가 2분기 확정실적을 발표할 때 주주친화정책을 함께 발표할 경우 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만 나오고 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주간 경제지표 일정

일정	국가	기준월	지표	예상치	이전치
27일	미국	6월	내구재주문	2.5	-2.2
	유로존	6월	통화공급(M3) 증가율		5
	독일	7월	IFO 기업환경지수		107.4
28일	미국	7월	소비자신뢰지수	100	1.014
	미국	5월	케이스쉴러 주택가격	5.3	4.3
	영국	2분기	GDP 성장률		0.4
29일	미국		FOMC회의(28~29일)		
	미국	6월	잠정주택판매	1	0.9
	일본	6월	소비판매		1.7
30일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2.5	-0.2
	일본	6월	광공업생산(잠정)	0.1	-3.9
31일	한국	6월	광공업생산		-2.8
	한국	6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4.1
	한국	8월	제조업 BSI 전망		67
	미국	7월	시카고 PMI	50.8	49.4
	미국	7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94	96.1
	유로존	7월	소비자물가(잠정)		0.2
	유로존	6월	실업률		11.1
	일본	6월	소비자물가		0.5
8월 1일	한국	7월	수출		-1.8
	중국	7월	제조업 PMI		50.2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제공

코스피 약세에 국내 주식형 펀드 '부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코스피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주식형펀드도 하락세를 기록했다.

26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이 지난 24일 공시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펀드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국내 주식평펀드는 한 주간 1.16% 하락했다.

소유형 기준 중소형 주식펀드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다.

일반 주식 펀드와 배당주 펀드가 각각 0.45%, 0.42% 하락했고, 특히 대형주 부진 속에 코스피200인덱스펀드가 -1.6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의 강세가 두드러지며 중소형주펀드가 같은 기간 0.41% 상승했다.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펀드 1754개 펀드 가운데 465개 펀드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코스피 수익률을 웃돈 펀드는 954개로 나타났다.

국내 채권시장은 강세를 나타냈다.

보유채권의 듀레이션(투자금 평균 회수 기간)이 2년 이상인 중기채권펀드의 수익률이 0.38%로 가장 우수했다. 이어 AAA이상 등급에 투자하는 우량채권펀드와 일반채권펀드가 각각 0.25%, 0.16% 상승했다. 초단기채권펀드와 MMF의 수익률은 0.03%였다.

해외주식펀드는 중국 증시 상승과 그리스 우려 완화로 강세를 보이며 한 주간 2.30%의 수익률을 올렸다.

/김민지 기자

은행株, 하반기 투자매력 증가로 반등 꿈꾼다

美 기준금리 인상·은행 PER 하락 '호재'
하반기 주가상승 예상… 저가 매수 시기

| 마켓인사이트 |

최근 박스권 최하단에서 거래되는 '은행주'가 미국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은행주는 긴 부진을 겪으며 박스권을 맴돌았다. 최근 2개월간 11.4%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주가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는 미국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리도 반등할 전망"이라며 "하반기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진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주가 박스권 최하단인 업종 주가순자산비율(PBR) 0.48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정책과 금리 모멘텀에 강한 반등을 할 수 있는 국면으로, 금리 베팅에 나서도 잃을 게 없는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1년 국내 은행주가 미국 은행주보다 초과 수익률을 낸 기간이 배당확대와 부동산 규제 완화, 세계 장기 국채금리 상승 등이 두드러진 지난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연합뉴스

해 7~9월과 올해 4~5월"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내 은행주 수익률이 미국 은행주를 웃돈 기간에는 공통으로 10년물 등 장기 국채금리가 올랐다"면서 "국내 은행은 이자이익 비중이 높다 보니 순이자마진(NIM) 변동에 따른 이익 민감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은행의 주가수익비율(PER)이 평균 이하로 내려간 것도 은행주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 보통 PER이 낮으면 그만큼 해당 기업의 주가가 더 올라갈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박선호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최근 은행의 평균 PER가 7.3배까지 내려갔다"며 "이는 과거 평균인 8~10배를 밑도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은행의 2분기 총 당기순이익은 1조6400억원으로 전기 대비 13.8%, 전년동기 대비 22.6% 각각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3분기 이후 은행들이 NIM 하락세를 얼마나 방어해 내느냐와 대출 성장세가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2분기 은행들의 NIM은 안심전환대출 판매와 유동화 효과와 3월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겹쳐 기업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7~12bp 정도 하락할 것"이라며 "다만 3분기 NIM은 최소 현상유지 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향후 은행권 NIM은 더디게나마 상승 추세로 전환할 것"이라며 "은행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내년 1분기부터는 NIM이 상승 반전할 것"이라며 "주가의 선행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올해 4분기부터 은행주가 상승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김민지 기자 minji@

초대 하나·외환 통합은행장 '4파전'

김병호·김한조 유력 거론
신규 등기이사에 선임 된
김정태·함영주도 후보에

자산 290조원의 통합 하나·외환은행을 이끌 은행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 23일 열린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병호 하나은행장, 김광식 하나은행 상임감사위원, 함영주 하나은행 부행장 등 4명을 신규 등기이사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등기이사는 기존의 김한조 외환은행장을 포함, 모두 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 김병호·김한조·김정태·함영주 4파전

통합은행장은 이들 등기 이사 가운데 선임될 예정으로 감사인 김광식 상임위원을 제외한 4파전이 될 전망이다.

(사진 왼쪽부터) 김병호 하나은행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김한조 외환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 부행장.

당초 통합은행장에는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김병호 하나은행장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김 회장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며 승자를 점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김 외환은행장의 경우 지난 1년간 지지부진했던 통합작업과 노조의 반발 등으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상태다.

앞서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김 행장에 경영실패의 책임을 물어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노조는 "외국환과 해외영업 등에서 국내 최고를 자랑했던 외환은행의 실적이 불과 1~2년 새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경영실패와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취임한 김병호 하나은행장의 경우 올해 54세로 통합은행을 이끌기엔 아직 젊다는 평가가 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의 최측근이었다는 꼬리표도 발목을 잡는다. 김정태 회장이 김 전 회장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했던 만큼 흔쾌히 낙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김병호 행장은 하나은행의 모태라 할 수 있는 한국투자금융 출신으로, 온화한 성품에 국제감각과 전략통이라는 강점이 있다"면서도 "김승유 전 회장과 김 행장이 친인척 관계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촉망받았기 때문에 통합 행장으로 밀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통합행장, 하나금융 2인자·차기 회장 후보 프리미엄 붙어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의 행장 겸임 여부도 주목된다.

김 회장은 지난해 조기통합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후 '뚝심 리더십'으로 통합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지난 2월 연임에 성공해 2018년 3월까지 하나금융을 이끄는 최고 실권자다.

이때문에 윤종규 KB금융회장 겸 행장처럼 일정 기간 겸임하며 조직을 안정화시켜 나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제3자가 통합행장으로 오는 등 '어부지리'의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또 다른 관계자는 "함영주 충청영업그룹 부행장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며 "올 초 하나은행장 후보로 꼽히기도 했고 조직 내 신망도 두텁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부의 제3자가 통합행장으로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겨우 봉합된 노사갈등이 다시 터지는 등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통합행장이 될 경우 하나금융의 2인자가 될 뿐만 아니라 차기 회장 후보로 부상하는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통합 시너지와 조직 안정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합병기일을 9월 1일로 잡았으며 이를 위한 주주총회를 내달 7일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8월 10일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산·운영·경영능력 등을 포함한 본인가 절차를 진행한다.

예비인가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임원진과 임원자격요건, 경영지배구조 적정성 여부 등도 본인가 신청 시 심사받게 된다.

통합은행장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8월 말쯤 결정될 예정이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IBK기업은행 'i-ONE뱅크 하고 유럽으로 떠나자!' IBK기업은행은 내달 25일까지 'i-ONE뱅크' 첫 이용 고객 6명에게 추첨을 통해 최고 300만원 상당의 유럽여행권을 증정하는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27일부터는 한달간 매일 선착순으로 100명씩 총 3000명에게 스타벅스와 롯데리아 등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i-ONE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금융거래과 상품가입, 자산관리를 하나의 앱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215개 상품에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고 온라인 상품상담도 가능하다. /기업은행 제공

"성공적 민영화 위해 기업가치 올려야"

우리銀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이광구 행장, 9개 목표 제시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올 하반기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키로 했다.

26일 우리은행은 이 행장이 지난 25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임직원 1600여 명과 '2015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이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광구 은행장은 지난 상반기 동안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몫을 다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반 발 앞서 나가자는 뜻의 '영선반보'자세와 함께 하반기에는 발빠른 전략과 실행으로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FIRST MOVER'가 되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계좌이동제 대응 ▲자산관리 시장 확대 ▲우량자산 증대 ▲건전성 관리 ▲비용절감 ▲찾아가는 영업 ▲직원역량 강화 ▲핀테크 시장 선도 ▲글로벌 시장 확대 등 9가지 하반기 영업전략을 수치와 함께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찾아가는 영업을 위해 직접 발로 뛸 것을 주문하며 모든 지점장들에게 구두를 선물했다.

이 행장은 "민영화 방향이 발표된 만큼 모든 직원이 역진필기(力進必起)의 자세로 힘을 합쳐 기업가치를 올려야 한다"며 "성공적인 민영화를 통해 2020년까지 아시아 TOP10, 글로벌 TOP50 은행이 되자"는 비전을 내놨다.

한편 이날 경영전략회의에서는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우리은행 최초로 중국 현지 직원이 소속장급인 심천분행장에 특별 임명됐다. 또한 위비뱅크를 통해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스마트금융사업단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밖에 암투병 중인 부지점장급 직원의 쾌유를 위해 소속장급으로 특별 승진시키기도 했다. /백아란 기자

지난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5년 하반기 우리은행 경영전략회의에서 이광구 은행장(사진 가운데)이 이동건 수석부행장(사진 왼쪽), 정수경 상임감사위원과 함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NH농협생명, 판매 역량강화 '체험형 교육 콘텐츠' 개발

NH농협생명은 지난 6월 지역 농·축협 보험판매 역량강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체험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 상표권과 관련특허를 출원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알기 쉬운 '체험형 교육 콘텐츠'에는 카드에 적힌 문제를 많이 맞히는 상품지식게임과 카드에 적힌 상황에 따라 상담 및 거절처리 훈련을 하는 롤플레잉 게임, 농·축협 현장 우수사례를 취합하여 만든 창구용 보험판매 매뉴얼 등이 수록돼 있다.

'체험형 교육 콘텐츠'는 카드게임을 통한 보험 판매 기법을 교육하는 것으로, 창구에서 여·수신, 카드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농·축협 직원들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보험 업무를 습득할 수 있다.

NH농협생명은 전국 16개 지역 총국을 통해 농·축협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험마케팅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알기 쉬운 '체험형 교육 콘텐츠'의 개발은 지역총국의 마케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앞으로 도 게임과 같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면서 학습이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상품지식게임의 경우 농·축협 뿐만 아니라 향후 전 영업 채널을 대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현대ENG 분식회계 의혹… 정의선 승계 악재

공인회계사 감리 착수 금감원도 협조 나설 듯

내부거래로 덩치 키웠지만 당국 조사에 상장준비 차질

최근 현대자동차그룹 건설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분식회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에 착수하고 추후 금융감독원까지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현대엔지니어링이 정의선(사진) 현대차 부회장의 경영 승계 핵심 축으로 지목된 만큼, 추후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 최근 경질된 고위 임원 3000억 규모 분식회계 제보

KBS는 지난 23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천억원 이상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부 고발을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경질된 김 모 재경본부장(CFO)이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상부에서 2014년 영업이익을 4000억원 규모로 맞추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1000억원도 못미치는 영업익을 3000억원 이상 고의로 부풀린 것.

이에 대한 근거로 제보자는 원가율 조작을 내세웠다.

원가율이란 사업비에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공사수익과 직결된다. 예컨대 한 공사현장의 원가율이 90%이면 10% 가량의 수익이 남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원가율이 100%가 넘으면 손실이 발생한다.

◆ 정의선 3세 승계 핵심 축 현대ENG…이노션 동일수순

지난해 현대엠코와 합병한 현대엔지니어링은 그간 정의선 부회장의 3세 승계의 핵심 축으로 지목돼 왔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4월 현대엠코와 공식 합병했다.

정 회장은 당시 현대엠코 지분 25%로 최대주주인 반면, 직접 보유한 현대엔지니어링 주식은 없었다.

하지만 합병으로 정 부회장은 현대건설(38.6%)에 이어 11.7%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여기에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지분(11.7%) 등을 통해 사실상 현대엔지니어링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결국 현대엠코와 현대글로비스의 기업가치를 높여 그룹 순환출자 구조의 핵심인 현대모비스 지분 확대라는 고리를 완성할 수 있게 된 것.

합병 이후 현대엔지니어링은 그룹공사를 대거 수주하고 있다. 건설업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대엔지니어링이 그룹공사로 올린(내부거래) 매출은 1조682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매출의 20%가 넘는 액수다.

반면 모회사인 현대건설의 그룹물량은 전체매출의 2%에도 못미치는 1704억원에 불과하다.

그룹이 현대건설이 아닌 현대엔지니어링에 일감을 몰아주는 가장 큰 이유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이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대부분 우량 비상장사의 경우 상장을 하게 되면 주당 가격이 폭등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현재 비상장사 중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업체가 현대엔지니어링인 점을 감안하면 대주주인 정 부회장과 현대건설의 주식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7일 상장한 현대차그룹 광고 계열사 이노션과 비슷한 양상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3년 국내 물류와 광고 계열사의 내부거래 물량을 해마다 6000억원 상당을 줄여 중소기업에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노션의 지난해 내부거래 액수는 1806억원으로 1년 전(1377억)보다 31% 늘었다.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도 38.7%에서 45.7%로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처분한 30%의 주식과 상장 직전 매각한 7%가량의 주식 등을 통해 정 부회장이 취득한 현금은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추후 그룹승계의 핵심인 현대모비스 주식 매입에 쓰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현대ENG 상장 당분간 힘들 듯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감리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미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했다. 상장사와 달리 비상장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를 맡고 있다.

다만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금감원이 함께 조사할 수 있다.

상장을 최종심의하는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보호와 질적 경영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 분식회계가 작용할 수 있는 것.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심의에는 기초적인 상장요건 외에도 투자자보호를 위한 질적 경영 안정성 부분도 주요 심의 대상"이라며 "문제가 제기된 기업을 상장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분식회계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아직 상장을 위한 준비작업도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2시간 만에 스마트하우스 뚝딱

이동 조립식 '하라반' 인기
일반주택보다 50% 비용절감 배수·샤워시설도 완벽 구비

여가 문화 확산으로 소형 이동식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녹이 슬고 낡아지는 컨테이너를 대신하면서도 경제적인 이동 조립식 스마트하우스 '하라반'(사진)이 화제다.

하라반은 간소하면서도 실용성 있는 구조로 일반 주택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는 생활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일반 주택에 비해 40~50%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일반 가정집처럼 싱크대, 배수구, 전기, 샤워 시설도 설치 가능해 주말농장이나 논, 밭 근처 계곡, 임야 등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다. 조립식 주택 설치에 약 2~3시간 소요되고 해체는 1시간이면 가능해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임시사무실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자재는 3층 구조판넬, 알루미늄 빔, CR강판, 주춧돌을 사용해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안전한 이동식 주택으로 펜션, 캠핑장 등에서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사용 가능하다.

현재 홍천과 제천에 하라반 전원주택을 설치해 판매중이다.

문의 1833-5110 /김형석 기자

대우 '구리 갈매 푸르지오' 1주일 만에 완판 대우건설은 경기도 구리시 갈매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한 '구리 갈매 푸르지오'가 지정계약 1주일 만에 전가구 분양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5일 계약에 돌입한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142㎡, 총 921가구 규모로, 공공개발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적용됐다. 견본주택 방문자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대우건설 제공

현대건설

상반기 영업익 4550억원 전년 동기比 2.6% 하락

현대건설은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4550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6% 하락한 수치다.

이 기간 당기순이익은 2558억원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7.3% 하락했다. 다만 매출액은 1년 전보다 9.6% 상승한 8조7588억원을 기록했다. 세전이익인 경상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소폭 상승한 3738억원을 보였다.

상반기 총 수주액은 11조 9664억원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수주 잔고는 69조7051억원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장기화되고 있는 저유가 흐름과 국내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반기 견고한 실적을 유지했다"며 "향후에도 수익성이 양호한 해외 신흥시장에서의 매출 증대와 주택공급 확대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아파트·오피스텔 장점만 쏙… 투자자에 인기몰이

배곧 '다인 로얄팰리스'
교육·의료 산학 클러스터 조성 배후수요 탄탄 높은 수익 기대

2~3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오피스텔보다 넓고 아파트와 비슷한 내부 구조를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이른바 '아파텔(아파트를 닮은 오피스텔)'이 주택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다인로얄팰리스는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 상2-5-1BL외 3필지 6964㎡에 기존 아파트의 편안함과 오피스텔의 편리함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2룸 또는 3룸 + 1거실 형태의 42㎡ ~ 60㎡형의 아파텔을 선보여 인기몰이 중이다.

'다인 로얄팰리스' 조감도.

특히 배곧신도시에는 각종 개발 호재도 몰리고 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서울대병원이 들어설 예정이고, 연구개발센터와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이 내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4호선과 수인선이 환승되는 오이도역, 서울대 국제캠퍼스(2018년 개교),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2016년 개점 예정), 일산 라페스타 형태의 복합쇼핑몰, 도시지원 연구 R&D단지 등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서해안고속도로, 정왕IC, 영동고속도로 등 쾌속한 교통망을 자랑하며 소사~원시선,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등 고속도로 교통호재도 잇따르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뛰어난 입지, 풍부한 배후수요를 통해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자 각지에서 모여든 투자자들로 연일 성황"이라고 말했다.

모델하우스는 영등포동3가 6-7번지(영등포역 3번출구)에 마련돼 있다.

문의 02-6334-9395 /김형석 기자

삼성전자, 새 폰 출시 앞두고 재고떨이?

갤S6·엣지, 아이폰6 못 넘어 점유율 염두 가격인하 전략 갤노트5 공개 전 정리 수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 침체와 부진을 막기위해 '가격 인하' 카드를 내놨다.

26일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기존에 출시된 제품의 재고 처리와 애플의 신제품 출시를 염두에 두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갤럭시S6 엣지 아이언맨 에디션.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 엣지 플러스 출시를, 애플은 아이폰6S 출시를 앞두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로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의 인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애플은 10개월 연속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아이폰6는 지난달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10개월 연속 정상을 지켰다. 2위 역시 애플 제품인 5.5인치 '아이폰6 플러스'가 차지했다.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는 지난 3월과 4월 판매량이 감소했지만 5월 들어 다시 판매량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삼성전자는 제품 가격 인하를 통해 스마트폰 판매량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와 국내 이동통신3사는 지난 17일 갤럭시S6 엣지 출고가를 10만원가량 내렸다. 갤럭시S6 엣지 출시 3개월만으로 조기 출고가 인하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또 삼성전자는 갤럭시S6엣지에 이어 갤럭시노트4도 출고가 인하 결정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3일 공개 예정인 갤럭시노트5 출시에 앞서 신제품과 가격 차별화와 재고 정리 수순의 절차로 보인다.

이에 따라 95만7000원의 갤럭시노트4 출고가는 15만7300원 내린 79만9700원으로 조정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 프리미엄 혼수가전 한 자리에 모였다

와이즈웨딩 스타일링 페어 다양한 체험·할인혜택 제공

삼성전자는 전날부터 이틀간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15 F/W 와이즈웨딩 스타일링페어'에서 슈퍼 프리미엄 냉장고 셰프컬렉션을 비롯한 주요 프리미엄 혼수가전을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

'와이즈웨딩 스타일링페어'는 결혼과 관련된 브랜드와 스타일링을 제안하는 대규모 프리미엄 웨딩 박람회로 올해는 약 90여개 웨딩 브랜드와 2000여 쌍의 예비 부부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전시존'을 운영했다.

삼성전자는 셰프컬렉션 등의 프리미엄 냉장고, 커브드 UHD TV, 버블샷 세탁기, 스마트에어컨 Q9000, 모션싱크 청소기, 인버터제습기, 스마트오븐 등 프리미엄 혼수가전 제품들을 전시했다.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15 F/W 와이즈웨딩 스타일링페어' 내 '삼성전자 전시존'에서 진행된 '셰프 쿠킹 클래스'에서 프렌치 레스토랑 '제로 컴플렉스'의 이충후 오너 셰프가 스파클링 냉장고와 스마트오븐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전시존에서는 프렌치 레스토랑 '제로 컴플렉스'의 이충후 오너 셰프와 함께 셰프컬렉션 냉장고를 활용한 '셰프 쿠킹 클래스'가 열렸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현장에서 프리미엄 혼수가전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삼성전자 S포인트와 웨딩마일리지 등과 함께 3만원부터 최대 13만원까지 특별한 할인 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했다.

이날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고객이라도 현장에서 받은 쿠폰을 지참하고 다음달 말까지 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일산본점·홍대본점 등 6개 지정 매장에 방문하면 동일한 혜택으로 행사 모델을 구매할 수 있다.

/임은정 기자 eunj71@

LG, 스포츠용 블루투스 韓·美 동시 출시

'LG 톤플러스 액티브' 나노 코팅 생활방수 강화 활동성 초점 디자인 개선

LG전자는 스포츠용 블루투스 헤드셋 'LG 톤플러스 액티브'를 한국과 미국에 동시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른 글로벌 시장에는 향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LG 톤플러스 액티브'는 제품 내부 곳곳에 나노 코팅을 적용해 생활방수 기능을 강화했다. 비, 눈 등 짓궂은 날씨와 몸에 흐르는 땀 같은 수분에 강해 야외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제품이다.

LG전자는 사용자의 활동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을 개선했다. 먼저 제품의 양 끝부분인 '윙 팁'을 활동 목적에 따라 교체할 수 있게끔 길이가 서로 다른 두 세트를 제공한다.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긴 '윙 팁'을 끼워 목에서 떨어질 염려 없이 사용하고, 평상 시에는 짧은 '윙 팁'을 착용해 쓸 수 있게 했다. 또 '넥밴드' 디자인을 적용해 목에 가볍게 감기는 착용감을 제공하고 '자동 줄감기 기능'을 넣어 별도 버튼 없이 간편하게 이어폰 선을 밖으로 당기고 안으로 넣을 수 있게 했다.

LG전자 모델이 'LG 톤플러스 액티브'를 착용하고, 다양한 야외 스포츠 활동을 즐기고 있다.

'LG 톤플러스 액티브'는 출시 국가의 니즈에 따라 오렌지, 블루, 라임, 핑크색상으로 출시된다.

'LG 톤플러스' 시리즈는 지난 6월 기준 글로벌 누적 판매 1000만대를 돌파했고 미국 블루투스 헤드셋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40%(美 시장조사기관 NPD 기준)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서영재 LG전자 MC사업본부 IPD사업담당 상무는 "올해도 차별화된 제품을 지속 선보여 블루투스 헤드셋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양성운 기자

車공장·조선소, 내달부터 최대 2주간 휴가

현대차, 대리이하 직원 130만원 한국GM, 임금타결 격려금 지급

국내 완성차와 조선 업계는 이달 말 또는 8월 초부터 공장 문을 닫고 일제히 휴가에 들어간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2주 동안 쉬거나 휴가비로 130여만원을 받는 업체도 있어 이들 업계의 올해 여름 휴가는 비교적 넉넉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자동차,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대표 굴뚝산업 제조업체와 협력사 등은 이르면 내주부터 일제히 휴가에 들어간다.

일관 공정인 자동차와 조선 업계 특성상 모든 직원이 쉬고 협력사들도 동반 휴가에 들어가 가족들까지

현대모비스 아산공장 직원이 다음주 휴가를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합치면 150여만명이 이 기간 업무를 쉰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전 사업장이 휴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구성된 자동차 업체의 특성상 공장을 포함해 양재동 본사까지 전 사업장이 예외 없이 휴가를 보내게 된다.

현대차 직원들은 30만원의 휴가비를 받으며 대리 이하 직원들은 통상 임금의 50%를 추가로 받는다. 이에 따라 대리 이하는 평균 130만원 휴가비를 받는다.

한국GM, 르노삼성차, 기아차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일제히 여름 휴가에 들어간다.

한국GM은 휴가비로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한다. 르노삼성은 80만원을 휴가비로 일괄 지급하는데 최근 임금 협상이 타결돼 휴가에 맞춰 타결 격려금 700만원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노조창립일인 오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휴가 기간이다.

조선업체 빅3 가운데는 대우조선이 가장 먼저 휴가에 들어간다. 오는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 2주간 집중휴가를 실시한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8월 3일부터 휴가에 들어간다.

/김종훈 기자 fun@

SK C&C '우리동네 전통시장' 알리미 나서

SNS서 내수 활성화 이벤트

SK C&C(대표 박정호)는 27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우리동네 전통시장 소개' 페이스북 이벤트(http://www.facebook.co.kr/skccsocial)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동네 전통시장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찾아 직접 찍은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하거나 댓글을 작성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추첨을 통해 10명씩, 4주간에 걸쳐 총 200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이다.

안석호 SK C&C CPR 본부장은 "이번 이벤트는 소소하지만, 침체된 내수 경기를 되살리고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마

음에서 기획된 것"이라며 "SK C&C 블로그를 다녀간 방문자수가 200만명을 넘을 정도로 활성화된 만큼 우리 회사만의 작은 이벤트가 아닌, 많은 네티즌들의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은정 기자

‘맏형’ 현대·기아차 먹구름에 ‘도미노 적자’

현대차그룹 상반기 영업실적
환율 직격탄에 車매출 하락
덩달아 부품업체 실적도 뚝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이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와 비교해 악화된 영업실적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룹 대표주자인 현대차·기아차에 이어 핵심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현대로템까지 줄줄이 하락한 수치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각 사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 상반기 매출 43조7643억원에 영업이익 3조3389억원의 실적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 줄고, 영업이익은 17.1% 감소한 규모다.

이 기간 차량 판매는 3.2% 감소한 241만5777대를 기록했다.

내수는 3.0% 감소한 33만5364대, 해외는 3.2% 감소한 208만413대를 판매했다.

기아차의 경우 상반기 매출 23조6187억원에 영업이익 1조1623억원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 줄고, 영업이익은 22.8% 급감한 수치다.

이 기간 차량 판매는 0.4% 감소한 143만7000대를 기록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달러화 대비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를 포함한 기타통화 대비 원화가 큰 폭의 강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업체 간 경쟁이 한층 심화되면서 상반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에 이어 그룹의 주축 계열사들도 전년 대비 떨어진 실적을 거뒀다.

현대모비스는 상반기 매출 17조5498억원에 영업이익 1조3972억원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 늘고, 영업이익은 7.6% 줄어든 규모다.

현대모비스측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고사양 차종 증가로 매출이 늘었지만, 유로와 루블 등 이종통화 약세와 함께 중국 지역 판매감소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밝혔다.

현대위아는 상반기 매출 3조9929억원과 영업이익 262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0% 늘고, 영업이익은 5.9% 감소한 수치다.

현대로템의 경우 상반기 매출 1조6810억원에 영업손실 130억원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58억원에서 적자전환했다.

이 기간 수주는 1조5926억원에서 4841억원으로 69.60% 급감했다.

현대로템측은 "철도와 플랜트 등 분야에서 해외 프로젝트 발주 지연과 예상수주 이월 발생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신규수주가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효성 ‘크레오라’ 파리서 시선 집중

‘파리 모드 시티’ 전시회
스판덱스 수영복·란제리 선봬
탄력성·체형보정 기능 강점

효성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수영복·란제리 전시회 '파리 모드 시티'에서 스판덱스 브랜드인 크레오라의 신제품 하이클로를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크레오라 하이클로는 내염소성이 뛰어나 수영장 소독약품에 의해 수영복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최소화 시켜주는 스판덱스 원사다.

일반 스판덱스를 사용한 수영복 보다 5~10배 오래 입을 수 있어 수영복 브랜드 스피도, 빅토리아 시크릿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이클로 55de는 40de로 만들어진 기존의 제품 보다 15% 정도 신축성이 향상된 제품이다.

하이클로 55de가 함유된 수영복은 착용감과 체형보정 기능이 뛰어나다.

특히 효성은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 수영복 브랜드 레노마 수영복과 협업해 하이클로 55de를 사용한 수영복을 소개했다.

박방수 레노마 팀장은 "고객들은 디자인이 우수하며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수영복을 선호하는데 효성의 크레오라를 사용한 원단이 이러한 부분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말했다.

현재 레노마는 효성 고내염소성 제품을 사용한 수영복, 래쉬가드 등을 판매하고 있다. 효성의 나일론 소재로 제작된 레노마 래쉬가드(사진)와 워터레깅스는 땀을 빨리 흡수하고 건조시킨다.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된 래쉬가드는 비침방지와 자외선 차단효과가 뛰어나다.

효성은 크레오라 하이클로 20de, 30de, 55de로 브랜드와 고객사의 지속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수영복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정용기 기자

한국가스공사

7본부·24처로 조직개편
해외사업·영업기능 강화

한국가스공사는 회사 조직을 6본부·1원·24처에서 7본부·24처로 오는 31일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해외 자원 개발과 도입 기능 연계 ▲해외 자원 개발 기술력 제고 위한 기술본부 신설 ▲영업기능 강화 등이 골자다.

해외사업본부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플랜트 사업과 중장기 LNG 도입 기능을 이관해 자원 개발과 도입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사업본부 소속은 관리부사장 산하로 편제해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해외 사업과 재무 간 종합 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해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산재해 있는 기술조직을 통합해 기술본부를 출범했다.

기술본부를 통해 해외 자원 개발과 천연가스 생산·공급 기술을 체계적으로 축적한다는 복안이다.

천연가스 판매 감소 추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영업본부(기존 도입판매본부)에 신규 수요 개발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는 등 영업 기능을 강화했다. /정용기 기자

‘세잎클로버 찾기 캠프’ 대학생 멘토 80명이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파주캠퍼스에서 열린 사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차 “한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

세잎클로버 찾기 캠프
교통사고 유자녀 80명 초청
대학생과 진로 멘토링 맺어

현대자동차는 인재개발원 파주캠퍼스에서 교통사고 유자녀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인 '세잎클로버 찾기 캠프'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중·고등학생 유자녀 80명과 대학생 멘토 80명 등 총 160명이 참가했다.

현대차는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행복이라는데 착안해 교통사고 유자녀들의 행복을 찾아준다는 의미에서 2005년 세잎클로버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13년부터는 대학생 1:1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해 사단법인 더나은세상과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 중이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1300명이 넘는 교통사고 유자녀에게 도움을 줬다.

지난달 말 선발된 대학생 멘토 80명은 멘토링 활동에 앞서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사전 교육을 마쳤다. 교육 중 현대차 임직원이 동참해 대학생 멘토의 활동을 응원해 주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캠프에서 참가자들은 대학생 멘토와 함께 ▲직업 현장 방문▲진로·적성 검사▲진로탐색 교육·강연 ▲멘토링 계획 수립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1:1 진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현대차는 멘토링 기간 동안 교통사고 유자녀에게 ▲진로 교육비 지원▲진로 콘서트 ▲학부모 초청 강연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차 측은 "세잎클로버 프로젝트는 교통사고 유자녀의 정서적 지원이라는 의미에서 뜻 깊은 프로그램"이며 "지난해 멘티로 참여했던 유자녀가 올해 대학생 멘토로 참가한 것처럼 현대차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사고 유자녀가 본인들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yonggi@

조선업계 빅3, 2분기 실적 ‘암울’

해양플랜트 악재 적자 전망

국내 조선업계 대형 3사가 저유가와 해양플랜트 악재 속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오는 29일 오후 실적 발표와 함께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한다. 대우조선해양도 29일 또는 30일 중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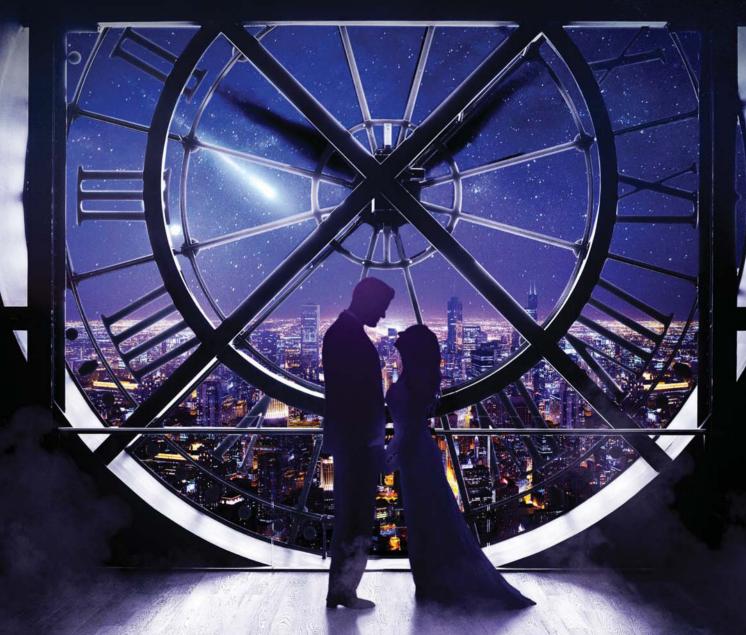
조선업계와 증권업계에서는 빅3가 올해 1분기 총 2000억원 규모의 영업 적자를 낸 데 이어 2분기에는 4조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조원 규모 영업손실로 최악의 실적을 낸 현대중공업은 올해 1분기 1924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2분기에는 해양플랜트 계약 변경 건 등이 반영되면서 1000억원대 적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 263억원을 기록했으나 해양플랜트 여파로 2분기에는 최대 1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강도 구조조정이 예고된 대우조선은 최대 3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정용기 기자

2007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초대형 창작 뮤지컬 '하루'!
2015년 일본에서 다시 한번 그 신화가 시작된다!

2007년 사상 최고의 캐스팅과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 역사상 최초 멜로 드라마의
틀을 깨고 소극장을 벗어난 대형 스케일을 보여준 뮤지컬 '하루'
당시 유료 점유율 50% 이상, 티켓오픈 당시 최초로 62.2% 돌파라는 흥행 기록을 세운
뮤지컬 '하루'가 2015년, 업그레이드 된 작품으로 일본에서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킨다!

당신의 소중한 일상,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할 배우를 찾습니다.

뮤지컬 하루(가제) 오디션 개최

◆ 공연일시 2015년 12월 13일 ~ 2015년 12월 25일 ◆오디션일정 2015년 8월 24일(월) ~ 8월 25일(화)

※자세한 사항은 ㈜엠뮤지컬아트 홈페이지(www.mmusical.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中시장 부진에 판매장려금 확대

글로벌업체·로컬업체 경쟁에 뛰어들어 신차 효과 극대화… 인센티브 확대 예정

현대·기아자동차의 중국시장에서의 판매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하반기 인센티브(판매장려금)를 늘려 글로벌 업체와 중국 로컬업체의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투자전략이 시장확대로 먹혀들지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양사는 올해 상반기 중국시장에서의 판매량이 모두 뒷걸음질 친 가운데 판매관리비는 늘어났다. 현대차의 올해 상반기 판관비 총액은 5조6350억원이다. 이 기간 인센티브가 포함된 마케팅 비용은 감소했지만 인건비, 판매보증비, 판매보증충당금 등이 증가하면서 판관비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0.7% 늘었다. 기아차의 판관비는 총 3조5540억원이다. 인건비, 인센티브, 판매보증비 등 모든 항목이 증가해 매출액의 15%를 차지했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49만8000여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8.3% 판매량이 감소했다. 기아차는 같은 기간 30만3000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이러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현대·기아차는 중국 시장 판매를 늘리기 위해 하반기 인센티브와 광고·마케팅 비용을 증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중국 로컬업체의 약진과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대대적인 인센티브 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서울 양재동의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중국승용차연석회의에 따르면 중국시장 내에서 현대·기아차와 2위를 다투는 GM은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확대한 결과 지난달 점유율 10.2%를 기록해 전달보다 1.7% 포인트 상승했다. 현대·기아차는 7.3%로 전달보다 1.8% 포인트 급락했다. 베이징현대의 점유율은 4.5%, 둥펑위에다기아는 2.8%였다. 같은 기간 엔저를 등에 업은 닛산은 5.7%에서 6.2%로 늘었다. 폭스바겐의 경우 17.7%로 전체 점유율 1위를 이어갔다. 로컬업체 창안자동차는 4.4%에서 4.5%로, 지리는 2.4%를 유지하는 등 선전했다.

이원희 현대차 재경본부장은 "중국 현지 업체의 성장세와 폭스바겐, GM 등과의 경쟁을 고려하면 올해 판매 목표 505만대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천수 기아차 재경본부장 역시 "하반기 업황 또한 좋지 않다. 중국 로컬업체의 저가제품에 대응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판매망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인센티브를 늘려서라도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처지다. 해외판매의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에서의 성적표에 따라 현대차그룹 실적이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신차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양사는 이 신차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기아차는 소비패턴이 양극화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선 컨버전스(융합) 등의 첨단기술이 옵션으로 적용된 신차, 프리미엄 제품 등으로 로컬업체의 저가제품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이 필요하다"며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도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이통사 'IoT' 가입현황 보고 의무화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휴대전화 가입자 통계에 더해 '사물인터넷(IoT)' 가입자 현황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가입자 현황 등 통계 항목에 사물인터넷 가입 현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개정 고시안이 시행되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사물인터넷 가입자 현황을 차량관제, 원격관제, 무선결제, 태블릿PC, 웨어러블 기기 등 기기 유형별로 작성해 미래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동통신 3사의 사물인터넷 가입자는 29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미래부는 휴대전화 가입자 현황도 '진짜' 고객과 통신사 내부용으로 나눠 작성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 사업자는 전체 이용자 현황을 고객용으로 가입된 경우와 사내 직원이 쓰는 이른바 '회사폰' 사용자로 나눠 제출해야 한다.

또 이동통신사별로 중고폰이나 해외 직구로 구매한 단말기를 이용한 '자급폰' 가입 현황도 자사와 알뜰폰(MVNO) 가입자로 나눠 보고하도록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물인터넷 등 달라진 정보통신 환경을 반영해 가입자 현황을 파악하고자 통계 항목에 사물인터넷을 추가하게 됐다"고 전했다.

/임은정 기자

LGU+·노키아, 차세대 기술개발센터 개소

5G 핵심기술 공동개발 예정 연구 구체적 협력방안 논의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노키아와 함께 5G와 사물인터넷(IoT)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LG유플러스-노키아 차세대 기술 개발 센터'를 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월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차세대 통신망 진화 연구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양사는 이번에 설립된 차세대 기술 개발 센터를 통해 5G 핵심 기술인 대용량 데이터 전송 기술, 저지연 무선 접속 기술, 클라우드 가상화 기지국과 IoT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김선태 LG유플러스 SD본부장(부사장)과 앤드류 코프 노키아 코리아 대표 등 관계자들이

'LG유플러스-노키아 차세대 기술 개발 센터'에서 이창우 LG유플러스 네트워크본부장(부사장·왼쪽부터), 김선태 LG유플러스 SD본부장(부사장), 앤드류 코프 노키아 코리아 대표, 조봉열 ATC 센터장(상무)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참석해 양사가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네트워크 연구개발과 시연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국내 연구소 개소를 시작으로 LG유플러스와 노키아는 5G와 IoT를 위한 공동 연구와 시험·결과 공유를 포함해 기술·장비 개발·디바이스 등 개발 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양사는 5G 기지국 개발과 테스트, 코어망에서 단말까지 이어지는 모든 단계 시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5G 상용화 전 진화된 형태의 주파수 묶음 기술, 스몰셀 기술 등 LTE-A기술 개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임은정 기자 eunj71@

코오롱 양궁팀 '꿈나무 양궁교실' 열어

코오롱 양궁팀 '엑스텐보이즈'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코오롱 양궁장에서 초·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코오롱 꿈나무 양궁교실'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행사에는 서오석 코오롱 감독을 비롯해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3관왕인 세계랭킹 1위 이승윤 선수,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창환 선수 등 코오롱 소속 선수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동참했다.

양궁교실은 양궁이론 강의, 활쏘기 시범, 활쏘기 체험, 미니게임, 기념촬영과 선수 사인회 등으로 진행됐으며 안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25명도 참여했다.

이승윤 선수는 "학생들에게 양궁의 재미를 선사하고 양궁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엑스텐보이즈는 학생들에게 양궁 체험의 기회를 제공, 유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양궁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창단 이후부터 매년 여름에 양궁교실을 무료로 열고 있다.

/정용기 기자

폰 하나로 전화번호 2개 사용… KT '올레 투폰' 출시

KT(회장 황창규)는 하나의 휴대폰, 하나의 요금제로 2개의 바탕화면과 세컨드 전화번호가 부여되는 '올레 투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레 투폰'은 하나의 스마트폰에 전화번호 2개를 부여 받고, 문자메시지와 주소록, 사진첩은 물론, '카카오톡'을 비롯한 앱을 각각 관리하는 부가서비스다.

'올레 투폰' 이용 시 번호 별로 각기 다른 스마트폰 바탕화면이 부여된다. 그래서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2대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통신요금을 2배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

'투폰'으로 제공된 세컨드 전화번호는 한 달에 2차례 고객센터나 대리점, 스마트폰 기능 설정에서 변경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 적용된다. LG G4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바로 '올레 투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주요 스마트폰 모델은 다음달 중 적용될 예정이다.

'올레 투폰'은 기존 '투넘버' 서비스와 달리 각 전화번호에서 앱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특허와 기술을 적용했다. 이 같은 기능은 KT의 '올레 투폰'이 유일하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한편, '올레 투폰' 서비스는 월 4400원(VAT포함)이다.

올해 12월까지 신규 가입자에 한해 가입 첫 달은 이용료가 100원이다.

/임은정 기자

BGF, 리테일-캐시넷 합병… 100억원대 차익

홍석조 삼부자, 6배 이득 BGF리테일 지분도 지켜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63·사진)과 두 아들이 BGF리테일과 BGF캐시넷(이하 캐시넷)의 합병·주식교환으로 얻는 차익이 100억원을 넘었다.

또 이들 삼부자(父子)는 캐시넷의 최대주주 BGF리테일이 신주 획득을 포기하며 재산증식과 함께 지분도 지켰다.

◆ 삼父子, 캐시넷 합병으로 원금 대비 6배 차익

BGF리테일과 캐시넷의 합병을 통해 홍 회장과 장남 홍정국 상무와 차남 홍석조 씨 등 삼부자가 얻게 되는 BGF리테일 신주의 가치가 24일 종가 21만500원 기준 122억2773만원을 기록했다.

2009년 12월 캐시넷 설립 당시 삼부자가 총 15억6200만원을 투자해 6년 만에 약 106억6500만원의 차익을 얻게 된 셈이다. 당시 홍 회장은 5억원을 투자했다. 두 아들은 각각 5억3100만원씩 투자했다.

합병 공시가 있었던 지난 5월 26일 BGF리테일 주식 종가는 14만5000원. 양사의 주식교환 비율(1:0.0185950)을 적용하면 홍 회장과 정국·석조 씨가 얻는 주식의 가치는 84억2000만원이다.

◆ BGF리테일 지분도 지켜

합병으로 100억원대 차익을 실현함과 동시에 장남 홍정국 상무의 BGF리테일 지분은 늘고 홍 회장 지분 하락폭은 낮아졌다.

이번 합병·주식교환으로 발행될 신주는 원래 23만578주였지만 캐시넷의 최대주주(41.94%)인 BGF리테일이 지분 획득을 포기해 13만3884주만 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홍정국 상무의 BGF리테일 지분은 0.20%에서 0.28%로 0.08%늘고 홍 회장의 지분은 34.93%에서 0.12% 하락한 34.81%다.

삼부자가 얻게 되는 BGF리테일 신주는 총 5만8089주다. 홍 회장이 가진 캐시넷 주식은 100만주(8.06%)로 1만 8595주를 얻는다. 정국·정혁 씨가 가진 캐시넷 주식은 각각 106만2000주(8.56%)로 각각 1만9747주를 받게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100억원대의 차익이 생겼다고 해서 홍 회장 부자가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은 낮다"며 "합병을 통해 재산 증식과 승계 작업 등을 노린 것일 수 있다. 더욱이 BGF리테일이 신주 획득을 포기하며 지분까지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GF리테일 측은 "이는 그간 문제가 됐던 BGF리테일의 캐시넷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하고 경영효율화를 위함이지 차익 실현이나 경영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BGF캐시넷은 2009년 12월 설립된 CD·ATM VAN사업자로 2009년 BGF리테일 계열사로 편입됐다. BGF캐시넷의 ATM기는 90% 이상이 BGF리테일의편의점 CU에 설치되며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매출 469억원을 기록했다.

BGF캐시넷은 8월 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접수를 한 뒤 8월 21일 주식교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HDC신라·한화갤러리아 면세점 12월 개장

HDC신라
세계 최대 규모 단일 면세점 용산전자상가와 상생 협력

한화갤러리아
중소·중견기업 특별관 34% 100여개 브랜드 전용관도

현대산업개발 본사(왼쪽)와 호텔신라. /연합뉴스

지난 10일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HDC신라면세점(공동대표 양창훈·한인규)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대표 황용득)가 내년 초 예정된 개점 일정을 당겨 12월 용산과 여의도에 개점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두 면세점은 중국 관광객이 몰리는 내년 설을 목표로 개점 계획을 세웠으나 조기 개장하기로 결정했다.

HDC신라면세점은 8월 중 개점을 위한 조직 구성을 하고 9월 초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마친 직후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HDC신라면세점은 2만7400㎡규모로 단일 면세점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면세점과 용산 전자상가 사이에 관광차량 전용 진입도로와 전용 주차장이 조성되며 이를 위해 3만7600㎡가 별도로 지원된다. 현대아이파크몰과 그 뒤편에 공사 중인 앰배서더호텔·이비스호텔은 구름다리로 연결된다.

HDC신라는 한강·이태원·이슬람사원·국립중앙박물관·전자상가 등 용산의 관광 자원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물론 용산역 철도망을 따라 강원·충청·호남·영남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특히 면세점에 국내 최대인 3700㎡ 규모로 중소·중견기업 전용관이 조성돼 K-Cos(국산화장품) 존, K-Bag(국산핸드백) 거리, 지자체 특산품 전용매장, 한국식품 명인관, 한국 수산물 코너, 코레일 특화 매장이 들어선다.

HDC신라는 용산 전자상가를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와 중국 베이징(北京)의 중관춘(中關村)처럼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생 협력할 예정이다.

한화갤러리아는 시내면세점 사업권 획득 후 곧바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공사·상품기획·보세·물류·마케팅 등 부문별로 운영 계획을 시행했다. 63빌딩 면세점의 본격적인 공사는 9월부터 들어갈 계획이다.

63빌딩 지하 1층과 63빌딩 별관 1, 2, 3층을 활용해 1만72㎡로 조성될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은 '현대적인 럭셔리로의 여행'을 콘셉트로 꾸며진다.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의 특징은 전체 면적 중 중소·중견기업 특별관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카페 '류(RUE)'다. 지하 1층에 럭셔리 부티크·화장품, 지상 1층에 시계·주얼리·전문 샵, 2층에 국산화장품·패션·잡화·담배·주류, 3층에 중소·중견기업 특별관이 들어선다.

중소·중견기업 특별관이 30003㎡로 전체의 34%를 차지하며 100개 이상의 브랜드 전용관도 선보인다. 4층에는 류가 들어선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달 말 루상그룹의 산둥여행사, 텐진시 국유기업인 텐진해태그룹의 텐지해태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직원 연수·인센티브 관광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성현 기자

'동남아 열대과일 맛보세요' 26일 오전 서울 성동구 롯데마트 행당역점에서 모델들이 망고와 용과, 코코넛 등 동남아 열대과일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29일까지 전국 110개점에서 '동남아 열대과일 축제'를 열고 필리핀 망고·코코넛, 베트남 용과, 태국산 생두리안 등을 판매한다. /연합뉴스

'금값 싸다' 金 테크 열기 후끈

G마켓·옥션 등 온라인서 금제품·골드바 매출 급증

근 한달 새 국제 금값이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금으로 몰리는 '금테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6일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www.gmarket.co.kr)에 따르면 최근 한 달(6월 24일~7월 23일) 순금제품·골드바 판매량은 작년 같은기간의 2.4배(138%↑)로 급증했다.

G마켓 주얼리(귀금속 및 장신구)·시계 부문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도 '피주얼리 순금 골드바(3.75g 17만6000원)', '일반형 돌반지(3.75g 18만7000원) 등 순금 제품들이 상위권에 올라있다.(24일 기준) 평소 주로 시계·선글라스·귀걸이 등이 상위권을 점령하는 것과 비교해 이례적이다.

옥션(www.auction.co.kr)에서도 최근 한달(6월 24일~7월 23일) 순금 제품의 매출이 작년 동기대비 20% 늘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몸집 키운다

맥도날드·버거킹 등 가맹점·점포수 확대

맥도날드와 버거킹 등 햄버거 업체들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매장을 늘리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60여 개의 매장을 늘렸다. 같은 기간 버거킹은 177개 매장에서 211개로, 맥도날드는 365개 매장에서 409개로 각각 점포수를 확대했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가맹사업자 모집을 본격화하고 가맹점을 1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버거킹 역시 한국 진출 30년 만에 가맹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까지 전체 점포수를 300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 같이 햄버거 업체들이 매장수를 늘릴 수 있었던 이유는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빵집 등 적합업종 지정 품목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출점 규제로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다.

/김수정 기자 ksj0215@

현대百, 문화홀 여름방학 특집전

현대백화점(대표 김영태)은 27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전국 13개 점에서 '여름을 부탁해! 문화홀 여름방학 특집전'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목동점에서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7층 문화홀에서 '키자니아 어린이 직업 체험전'을 연다. 체험전은 실제 시설의 3분의 2 크기로 제작된 세트장에서 아나운서·의사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또 천호점에서는 13층 하늘정원에 '키즈파크'를 27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전개한다. 압구정본점은 다음달 9일 오후 3시부터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해설전'을 진행한다.

/김수정 기자

도심에서 벌어진 '물총축제' 코카-콜라사의 스프라이트가 25일과 26일 서대문구 창천동 신촌 연세로에서 '제 3회 신촌물총축제'를 열었다. 물총축제에 참가하는 소비자들이 '스프라이트 샤워'를 보다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물총축제와 연계한 스프라이트 만의 다양한 이벤트들을 진행했다. /스프라이트 제공

유통가, 장수캐릭터 마케팅 열풍

영화 캐릭터는 물론 미키마우스와 같은 장수 캐릭터까지 활용한 제품이 나오면서 유통가에 캐릭터 마케팅 열풍이 불고 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발 편집매장 ABC마트는 미키마우스 신발을 선보였다. 상품에 내년이면 아흔살이 되는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푸우 등을 그려넣었다.

BYC도 6~36개월 된 유아를 위한 '미피 오가닉 유아복 세트'를 내놨다. 아기 토끼인 미피는 1955년 만들어져 올해 환갑을 맞은 네덜란드의 '국민 캐릭터'다. 신제품은 오가닉 원단에 중간에 미피 패턴을 넣은 디자인과 와펜(옷에 부착하는 장식물)으로 개성을 살린 디자인 등 2종으로 출시됐다.

행남자기는 북유럽 신화 속 요정을 본떠만들었다는 무민캐릭터를 활용한 식탁 용품을 선보였다.

유통업계가 캐릭터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는 것은 캐릭터의 친근한 이미지가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도 사로잡을 수 있고 한정판매되기 때문에 소장 가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적 캐릭터는 가치가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수정 기자 ksj0215@

롯데마트·LG생건 '섬유유연제' 단독 판매

롯데마트가 전 점에서 LG생활건강과 손잡고 만든 '옷이 예뻐지는 액체 세제, 섬유유연제'를 단독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옷이 예뻐지는 액체세제'(일반 세탁기용·드럼 세탁기용)는 2.8ℓ 용량으로 일반 액체세제보다 고농축이라 기존 사용량의 절반(약 34㎖)만 사용해도 된다. 부드럽고 편안한 연꽃향이며 옷감 손상을 최소화 하는 황금 누에고치의 세리신 성분과 코팅 성분을 함유했다. 케어자임 효소가 옷감의 색상은 더욱 선명하게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옷이 예뻐지는 섬유유연제'(코튼 린넨향·시프레 향) 역시 2.8ℓ 용량에 고농축 상품으로 기존 사용량의 절반(약 20㎖)만 사용해도 되며, 피부 비자극 테스트를 거쳤다.

/김수정 기자

코로나, 세계여자비치발리볼 대회 개최

멕시코 대표맥주 코로나가 27일부터 사흘간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2015 코로나배 세계여자비치발리볼 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는 대회 기간 코로나로 꾸며진 경기장 주변에서 해변을 찾은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포토존과 게임존을 상시 운영한다. 스파이크 게임과 토스 게임 등 비치발리볼을 연상시키는 이벤트를 마련해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5 코로나배 세계여자비치발리볼 대회에는 네덜란드·슬로바키아·캐나다·체코·미국을 비롯해 한국 2개팀 등 7개국에서 8개팀이 참가한다.

/김수정 기자

정수기 시장 '신제품 승부수'

코웨이 '스파클링 아이스' 청호나이스 '휘카페' 등 트렌드 맞춰 라인업 강화

2조원대 정수기 시장을 두고 업체들의 신제품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대박을 터트렸던 제품의 시리즈를 확대하는 한편 융복합·직수형 등 트렌드에 맞춘 제품으로 승부수를 걸었다.

26일 코웨이에 따르면 올 2분기 탄산 정수기 라인 판매량은 전 분기보다 약 180% 뛰었다.

코웨이는 지난 5월 융복합 제품인 '스파클링 아이스 정수기'(CPSI-370N)를 출시했다. 지난해 7월 집에서도 간단하게 탄산수를 만들어 먹는다는 콘셉트의 스파클링 정수기(CPS-240L)를 출시한 지 10개월여 만에 얼음 기능을 추가한 새 제품을 선보인 것이다. 코웨이 측은 "융복합형 가전은 공간 사용·가격 측면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효율성을 지니고 있어 현명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호나이스는 커피 정수기 띄우기에 집중하고 있다. 휘카페를 비롯해 휘카페 티니·휘카페-Ⅱ·휘카페-Ⅳ 엣지 등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이달 출시한 엣지는 커피 정수기 4번째 제품으로 가로 29·세로 52·높이 47㎝의 초소형 제품이다. 청호나이스는 지난해 7월 '휘카페'를 출시한 이후 3개 제품으로 누적 1만 2000대를 팔았다.

동양매직 슈퍼정수기(WPUA 200C)는 3월 출시 후 4개월여 만에 4만1000대가 판매돼 국내 시장 직수형 정수기 중 단일모델로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홈쇼핑으로 간 업체도 있다. 쿠쿠전자는 지난 5월 CJ오쇼핑에서 진행한 '코크자동살균 정수기 인 앤 아웃 슬림' 론칭 방송에서 1800콜 이상의 주문 예약을 기록했다. 이 제품은 자동 살균 기능에 슬림한 디자인을 원하는 소비자를 겨냥했다.

업계 추산으로 2011년 1조원대였던 정수기 시장은 지난해 2조원대 규모로 성장했다. 코웨이가 절반에 가까운 43%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청호나이스·동양매직·쿠쿠전자 등 3개 업체가 약 10% 내외 수준을 유지하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정수기 보급률은 60%로 높은 편이지만 신규 업체 진출도 활발하다. 안마의자로 유명한 바디프랜드를 비롯해 렌탈 업체 현대렌탈케어 등이 출사표를 냈다. 불황에 12조원에 달하는 렌탈 시장이 급부상한 데다 정수기를 발판으로 비데·공기청정기 등 다른 생활가전까지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통 가전제품 수명이 7년 정도인데 비해 정수기는 5년으로 교체주기도 짧은 편이다.

/김수정 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식품업계, 잇단 이물질 논란에 '살얼음 판'

구더기 액상분유 논란 이어 배달이유식서도 벌레 나와 업계, 식품 안전 전반 점검

식품업계가 제품 단속에 나섰다. 최근 구더기 액상분유 논란에 이어 이유식에서 벌레가 나오는 등 이물 사고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자 제품 단속에 나선 것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기업과 제품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온라인 육아 관련 커뮤니티에는 배달이유식 업체인 베베쿡 제품에서 손가락 한 마디 길이의 살아있는 갈색 벌레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서울에서 사는 한 소비자가 생후 7개월 된 남자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다 꿈틀거리는 벌레를 발견했다. 이 소비자는 해당 업체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해명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제품 환불과 함께 6개월 치 무상지급 등 다양한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베베쿡은 합의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100도 이상에서 가열해 바로 밀봉하는 제품에 살아있는 벌레가 나올 수 없다는 점에서 제조과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제품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내주에는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베베쿡 관계자는 "약 2주전에 관련 민원이 제기 됐다. 본사 담당자가 진상조사를 위해 소비자를 찾아갔고 바로 식품의약안전처에 이물신고를 했다"며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사과는 드렸지만 제조상에서 그 정도 크기의 벌레가 나올 수 없지만 제조와 유통 단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LG생활건강은 최근 액상분유 '베비언스'에서 살아있는 구더기가 나왔다는 소비자 제보로 곤욕을 치른바 있다. 다행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제조유통 단계에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한숨은 돌리게 됐다.

그러나 유아들이 주로 먹는 분유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온라인과 SNS상에 퍼지면서 이미지 큰 타격을 입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이 업체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식약처가 기업의 책임이 없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며 "식약처의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제조와 유통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지며 식품안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일유업은 지난달 초 멸균우유 '상하목장 멸균 백색우유 125㎖'에서 '신맛이 난다'는 고객 불만에 따라 자발적 회수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이 회사는 전 생산과정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제조상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운송이나 대리점 보관상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품 박스 표면에 '취급주의'라는 문구를 넣기 시작해 배송 사고의 안전을 한 더 강화했다. 또 현재 종이와 비밀로 덮여있는 방식의 포장 외에 유통 과정의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포장도 검토 중에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이번에 리콜 된 멸균우유는 제조과정상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제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제품 포장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맥주와 찰떡궁합… 육가공 시장 선도

삼립식품 '그릭슈바인'
독일식 육가공 전문 브랜드
2030 女 타깃 이색 안주 인기

삼립식품(대표 윤석춘)이 독일식 육가공 식품전문 매장(메츠거라이 : Metzgerei)인 '그릭슈바인'을 오픈한다.

그릭슈바인은 '행운의돼지'라는 뜻의 독일어로 독일에서 돼지가 행운을 상징하는 동물이라는 점에 착안해 육가공 식품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했다.

서울 강남역 인근의 'SPC스퀘어 강남점'과 양재역 인근의 '양재점' 2개 매장이 있다.

그릭슈바인 매장에서는 20~30대 여성을 타깃으로 신선한 독일식 육가공 요리와 함께 다양한 독일 맥주를 제공한다. 가펠 쾰시·에딩거·슈나이더·마이셀 등 다양한 독일 맥주를 판매하고 있다.

메뉴는 독일식 정통 BBQ 요리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샐러드·애피타이저 메뉴는 물론 간단한 안주로 먹기 좋은 플래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메뉴는 독일의 대표적 돼지요리인 '슈바이네 학센'(3만 8000원)이다. 이 메뉴는 부드러운 돼지 앞다리만을 맥주에 삶아 오븐에서 드라이 과정을 거친 후 고온에서 튀겨낸다.

여기에 10일간 매장에서 직접 숙성시킨 독일식 양배추 김치 사우어크라우트, 웨지 감자와 각종 구운 채소 등이 함께 제공된다. 다양한 수제소시지와 햄 요리를 담은 '그릭슈바인BBQ'(4만 2000원)도 인기다.

삼립식품 관계자는 "삼립식품은 ㈜그릭슈바인과 그릭슈바인 매장을 통해 다양한 정통 유럽식 육가공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쉐라톤인천호텔, 연말까지 반값 할인

이달 31일까지 예약

국내 스타우드 호텔이 12월 31일까지 최대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프로모션을 내놨다.

프로모션에는 쉐라톤인천·서울 웨스틴조선·포포인츠서울남산·쉐라톤서울디큐브시티·알로프트서울강남·W서울워커힐·쉐라톤그랜드 워커힐·부산 웨스틴조선호텔을 포함한 국내 8개 스타우드 호텔이 참여한다.

예약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7월 13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숙박을 대상으로 한다. 스타우드 프리퍼드 게스트(SPG)회원일 경우 'SPG Restaurants & Bars'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레스토랑과 바에서 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쉐라톤인천호텔은 본 프로모션에서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투숙 고객은 피트니스·실내수영장 무료이용·Link@Sheraton에서의 인터넷 무료사용과 무료주차를 이용할 수 있다. 프로모션 정보와 이용약관은 www.korea.starwoodoffers.com/RHDKOREA/k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정 기자

이대목동병원, 보건의료 임상교육 수료

감염관리 과정 간호사직 37명

이대목동병원(병원장 : 유권) 공공의료사업센터는 지난 20~23일 공공보건의료 간호사직 임상교육의 2번째 과정을 모두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37명이 대상으로 '임상현장에서의 감염관리'를 주제로 4일간 진행됐다.

이날 수료식에서 유권 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보건 의료현장의 인력과 기관을 위한 임상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우리 병원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국내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

건보공단, 한국부인회와 상호협력 합의

서울본부, 경영 현안 설명회
전염병 간호서비스 확대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 본부는 지난 24일 한국부인회원을 대상으로 경영현안 설명회를 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는 지난 24일 한국부인회총본부회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 소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 등 다양한 공단의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그동안 공단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추진해 온 주요 성과 등을 공유했다. 앞으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 보호를 위해 공단과 한국부인회총본부가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종식단계에 접어든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과 관련, 전염병 확산 방지 뿐 아니라 가족의 육체적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확대실시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는 24일 현재 53곳의 요양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18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안보공단, 이륜차 배달사고 예방 앞장

경찰청·앱 3사 안전준수 MOU

여름철 주문량 증가와 빠른 배달에 따른 이륜차 배달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이륜차 배달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과 경찰청, 그리고 배달앱 3사가 함께 나섰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27일 경찰청과 배달앱 3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단은 이륜차 배달문화의 개선과 운전자 보호를 위한 '여름철 이륜차 안전배달 캠페인'에 적극 나선다.

업무협약을 맺은 이들 5개 기관·회사는 △이륜차 안전배달 가이드 제작과 보급 △ 이륜차 인도주행 단속 및 계도 △ 이륜차 운전자 교육 △ 배달앱과 홈페이지를 활용한 안전 배달문화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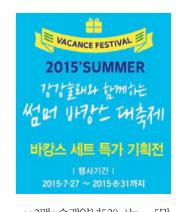
/최치선 기자

강강술래 "바캉스 먹거리 알뜰구매 하세요"

8월말까지 최대 65% 할인

외식문화기업 전한(대표 최종만)이 운영하는 한식숯불구이전문점 강강술래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고객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기 메뉴로 구성된 바캉스세트를 8월 말까지 최대 65% 할인 판매한다.

상계·시흥·홍대·늘봄농원점에서 바캉스1호(한돈양념500g×3팩)는 5만원, 바캉스2호(한돈양념500g+돼지양념750g+한우불고기500g)는 4만원, 바캉스3호(한돈양념500g+돼지양념750g+한우불고기500g+술래양념구이520g)는 7만원에 할인 판매한다.

신림·서초·역삼·여의도점에서는 바캉스1호(한우불고기1500g×2팩+술래양념520g)는 5만원, 바캉스2호(술래양념520g+왕양념갈비560g+한우불고기1500g)는 7만5000원, 바캉스3호(술래양념520g×2팩+왕양념갈비560g+한우불고기1500g)는 10만원에 파격가로 제공한다.

청담점에서는바캉스1호(한돈양념500g+술래양념520g)는 5만원, 바캉스2호(민속양념500g×2팩)는 4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한편 이달 31일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고 고소하며 레토르트 방식을 적용해 상온 보관이 가능한 보양식 한우사골곰탕박스(500㎖/10봉/20인분)를 50% 할인된 3만5700원에 판매한다.

또 100% 한우갈비살만을 사용해 한 끼 식사대용은 물론 영양간식과 술안주, 캠핑 먹거리로 좋은 칠칠한우떡갈비세트(360g×X3박스)도 50% 할인된 3만3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박상길기자 sweatsk@

서울메트로, 제19회 에너지 위너상 수상

전력 사용량 5년새 19% ↓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가 '제19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에너지절약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소비자시민모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최하고 지난 1997년부터 19회째 개최해온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은 매년 우수한 고효율 기기를 선정한다. 또 모범적인 에너지 절약활동이 뛰어난 기관을 발굴·장려함으로써 기술과 소비자 행태의 변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화 활동을 전개해 왔다.

서울메트로는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초점을 맞췄다. 역사 내 승강장과 대합실의 조명등을 저전력 고효율 LED로 교체했다. 그리고 요금이 싼 심야에 전력을 축전지에 저장해 둔 후 전기료가 비싼 최대부하시간에 사용해 최대부하전력(피크전력)을 경감시켜 기본요금을 절감했다.

서울메트로의 전력 사용량은 2009년 862,227MWh 이던 것이 2014년 695,097MWh로 19% 줄었다.

/복현명 기자

star bag

임슬옹 첫사랑 변신

배우 **조보아**가 웹드라마 '연애세포2'에 캐스팅됐다. 극중 임슬옹이 연기하는 박태준의 과거 첫사랑인 예봄 역을 맡았다. 사랑스러운 모습부터 청춘을 대변하는 취업준비생의 면모까지 보여줄 예정이다.

5년 만에 뭉친 유닛

그룹 빅뱅의 유닛인 **지디&탑**(GD&TOP)이 5년 만에 신곡을 발표한다. 이들은 빅뱅의 '메이드 시리즈' 네 번째 앨범 'E'에 수록된 신곡 '쩔어'로 활동할 계획이다. 지난 23일에는 뮤직비디오 촬영도 마쳤다.

자라섬에서 만나요

가수 **아이유**가 미스틱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는 음악 페스티벌 '2015 멜로디 포레스트 캠프'에 출연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출연이다. 멜로디 포레트스 캠프에는 아이유 외에도 유희열, 윤종신, 김연우 등이 출연한다.

컴백 활동 마무리

걸그룹 **걸스데이**가 3주 동안 펼친 신곡 '링마벨'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고 개별 활동에 들어간다. 소속사 측은 "혜리는 드라마 '응답하라 1999' 촬영에 들어가며 유라와 민아, 소진도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개별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달에 결혼해요

방송인 **김새롬**(28)이 이찬오(31) 셰프와 8월 말 결혼한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지인 소개로 만나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해 결혼까지 결심했다. 따로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대신 양가 부모와 식사 자리를 갖는 것으로 예식을 대신할 계획이다.

영화 '암살' **최동훈 감독**

최동훈(44) 감독의 영화라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 어두운 범죄의 세계, 그럼에도 유머를 잃지 않는 매력적인 인물들, 몇 겹으로 쌓인 흥미로운 플롯 등이다. '도둑들'로 1000만 감독 대열에 합류한 그가 차기작으로 독립군의 이야기를 그린 '암살'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의외로 다가온 이유다.

전작과 비교?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 'ㅌ타짜' 이후 구상해온 독립군 이야기
> 시대 재현·여성 캐릭터 묘사에 초점
> 빠져들 만큼 재미있는 영화 만들고파

알려진 대로 '암살'의 구상은 '타짜'를 마친 뒤부터 시작됐다. 독립군이 활동하던 1930년대의 무장투쟁을 다뤄보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마침 '타짜'를 제작했던 싸이더스의 차승재 대표가 허영만 화백의 만화 '각시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동훈 감독의 마음은 만주를 중심으로 한 독립군의 이야기에 있었다.

"'타짜'를 마친 뒤 떠오른 스토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나리오로 쓰지는 못했어요. 대신 '언젠가 이런 영화를 찍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전우치'의 한 장면에 그 이야기를 넣었죠(웃음). '도둑들'을 마치고 쓴 시나리오는 가쓰라-태프트 밀약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1년 동안 시나리오를 쓰다 엎은 뒤 다시 이야기를 썼죠. 조금 더 낭만적이고 여운이 남는 느낌으로 플롯과 에피소드를 바꿨어요."

중요한 것은 시대의 재현이었다. 영화는 1933년을 중요한 시간적 배경으로 삼는다.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설정이다. 독립군과 중국군 사이에 불화가 생기게 된 대전자령 전투가 일어난 해이자 윤봉길,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일어난 다음 해이기 때문이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한쪽에서는 모던한 문명이 들어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제의 수탈이 심해지는 이중적인 시대였죠. 시대를 재현하다 보니 제작비가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정말 빠듯하게 아껴서 찍었습니다(웃음)."

'타짜' '도둑들'처럼 여성 캐릭터가 전면에 등장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아주 조용하고 느린 '터미네이터' 같은 여성 캐릭터를 만들자는 생각이었어요(웃음). 감성적이고 미묘한 세계를 전달하는 데에는 여성 캐릭터가 더 어울리니까요. 악전고투를 벌이면서 정해진 임무를 향해 힘겹게 나아가는 모습처럼 말이죠. 보통 사람이지만 그들이 용기를 내 암살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 그것이 이 영화의 전체적인 '톤 앤 매너'였어요."

최동훈 감독의 작품은 늘 엇갈린 평가를 받아왔다. 전작과의 비교는 그에게 피할 수 없는 굴레다. '암살'도 언론시사회 이후 '도둑들'과 비교하는 평가가 많이 쏟아졌다. 이런 반응에 대해 그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피하지 않고 즐기려 한다"며 웃었다. "작품을 많이 찍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비교에서도 벗어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180억원에 달하는 높은 제작비에 스타 배우들을 기용하고도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는 작품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최동훈 감독의 작업이 놀라운 이유다. 그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즐겁다"고 말했다. "저에게 중요한 건 '내가 영화를 재미있게 찍느냐'예요. 3년 동안 영화 하나만 생각하고 사는 건데 그만큼의 집중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관객도 제 영화를 볼 테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빨리 다음 영화를 찍고 싶어요. 아직 써둔 시나리오가 없어서 또 3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말입니다(웃음)."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인간애' 바탕, 원로화가 황용엽의 회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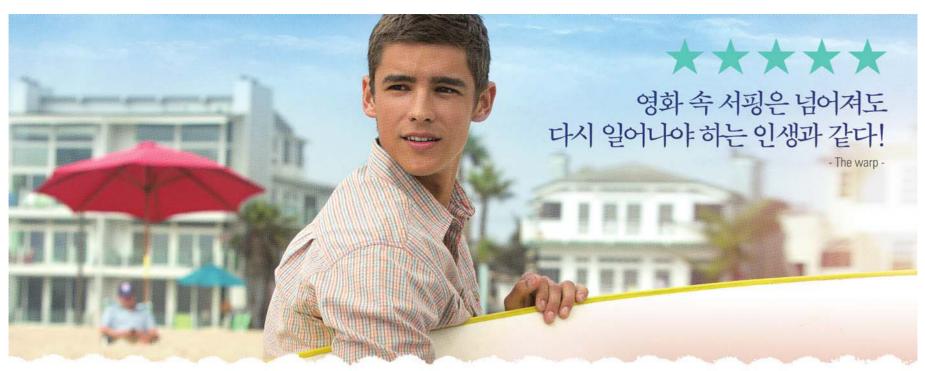
'인간의 길' 10월 11일까지 국립현대 과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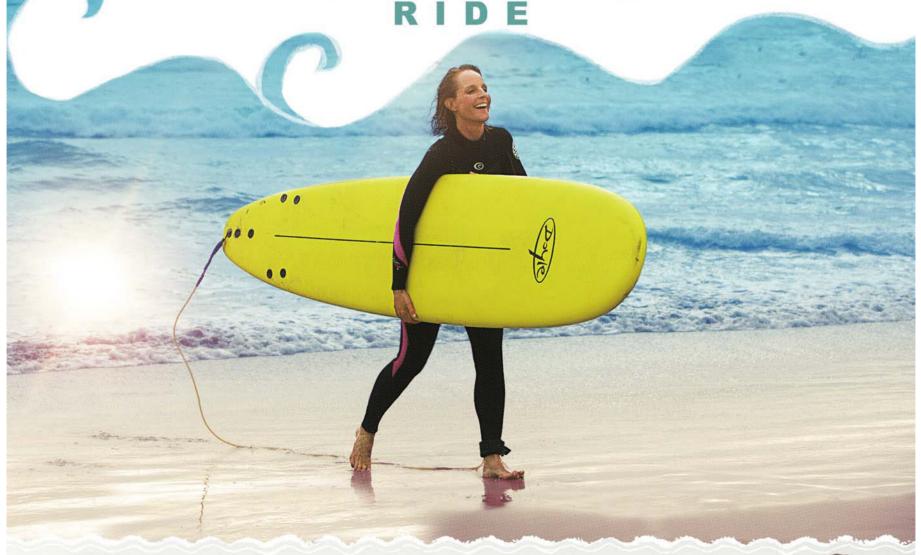
한국현대사의 격동 속에서 치열한 예술혼으로 독자적인 회화양식을 구축한 원로 화가 우산 황용엽의 예술세계가 펼쳐진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황용엽: 인간의 길' 전을 오는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제1전시실에서 개최한다. '황용엽: 인간의 길'전은 한국현대미술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원로 예술가들을 조명하는 국립현대미술관 현대미술작가시리즈 전시다.

1931년 평양에서 출생한 황용엽은 평양미술학교 2학년 때인 1950년 한국전쟁의 참화를 피해 월남했다.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 속에서 학업을 이어나가 1957년 홍익대를 졸업하고 당시 한국화단을 휩쓴 앵포르멜, 단색조 회화, 극사실주의 등의 예술 경향과 거리를 둔 채 '인간'을 화두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형상회화의 세계를 구축했다.

이번 전시는 인간애가 바탕이 된 황용엽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조망하는 대규모 회고전이다. 1960년대의 표현적인 색채를 지닌 왜곡된 형태의 인간부터 1990년대 이후 설화와 고분 벽화 등 전통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구도자형 인간까지 각 시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 작품이 소개된다. 문의: 02) 2188-6232

/김민준 기자 mjkim@

아들바보 억척엄마의 자아찾기

라이드
:나에게로의 여행
RIDE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헬렌 헌트
〈더 기버:기억전달자〉 브렌튼 스웨이츠

절찬 상영중!

ULTRAMEDIA |감독/주연|헬렌 헌트 |수입/배급| tcast cinecube |15세 이상 관람가| SIX SALES

고개 숙인 이병헌… "늘 죄송한 마음 갖겠다"

'협녀' 제작보고회 참석 1년 만에 첫 공식석상

지난해 동영상 협박 사건에 연루돼 잠정적으로 국내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이병헌이 영화 '협녀, 칼의 기억'으로 1년 만에 다시 대중과 만난다.

이병헌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제작보고회에 참석했다. 동영상 협박 사건 이후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참석한 그는 먼저 취재진 앞에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연 이병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할지 미국에서 계속 촬영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고민했다. 함께 영화 작업을 했던 많은 스태프와 관계자들에게 죄송함을 전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고 어떤 비난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도 저의 책임이다. 저 때문에 그들의 노고가 가려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배우 이병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관심 덕분이다. 큰 실망감을 드리고 뉘우침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때보다 소중한 가치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큰 실망감이 이런 몇 번의 사과로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많은 분들에게 드린 상처와 실망감을 갚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공식 사과 이후 이어진 제작보고회 행사에서도 이병헌은 진중한 태도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놨다. 포토타임에서는 다른 배우들과 달리 웃음기 없는 얼굴로 사진 촬영에 임했다.

이병헌은 지난해 동영상 협박 사건에 휘말려 국내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대신 해외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터미네이터 제니시스'에 출연한 그는 '비욘드 디시트'에 알 파치노와 함께 캐스팅됐다. 현재는 크리스 프랫, 덴젤 워싱턴, 에단 호크 등과 함께 '황야의 7인'을 촬영 중이다.

'협녀, 칼의 기억'은 당초 지난해 개봉 예정이었으나 이병헌이 논란에 휘말리면서 다음 달 13일 개봉하게 됐다. 영화는 고려 말을 배경으로 한 세 검객의 이야기를 그린다.

배우 이병헌(왼쪽), 전도연, 김고은, 박흥식 감독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협녀, 칼의 기억'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병헌은 천민으로 태어나 최고의 권력을 꿈꾸는 유백 역을 연기했다.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인어공주'의 박흥식 감독이 연출했으며 전도연, 김고은이 이병헌과 호흡을 맞췄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밥상 차려주는 회사들

◆MBC '다큐 스페셜'

오후 11시 15분

화제가 되고 있는 밥상 차려주는 회사들을 알아본다. 무제한의 공짜 음식으로 유명한 실리콘 밸리의 IT기업들부터 저염 건강식이 인기를 끌어 프랜차이즈 식당까지 낸 회사, 맛으로 유명한 모 연예기획사의 사내식당까지 이들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밥 한 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본다. CEO들은 성과를 내야하는 회사에서 사내식당은 직원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곳임을 역설한다.

/정리=하희철 기자 bbuheng@

◆ KBS2 '안녕하세요'

오후 11시 10분

지난주 2승을 차지한 '갈아치우는 남자'의 아성에 고민의 주인공들이 도전장을 내민다. 걸그룹 에이핑크의 정은지와 오하영, '개그콘서트' 시청률 1위의 주역들인 '니글니글' 멤버들이 함께한다.

◆ SBS '힐링캠프'

오후 11시 15분

새롭게 단장한 '힐링캠프'가 첫 선을 보인다. 천만 배우 황정민이 게스트로 출연해 500인의 MC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황정민은 날카로운 질문 세례에 당황을 감추지 못한다.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오후 9시 40분

탄수화물을 끊은 지 반년째인 샤이니 멤버 키의 다이어트를 위한 '상상 이상의 저열량 요리' 대결이 펼쳐진다. '자연주의' 미카엘과 '고열량주의' 김풍은 극과극의 요리를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7일 (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91회) 05 출동! 슈퍼윙스 25 내 친구 아서 45 발명이 팡팡!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1 (재) 30 헬로 코코몽(1·2)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곰디와 친구들(영어더빙·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방학 특집 우리말 한 판	50 오늘부터 사랑해 (78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31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35회)	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30 EBS 뉴스 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재)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 (재) 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재)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55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딱 너 같은 딸 (51회)	00 SBS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재) 20 스쿨랜드-절대비법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가요무대	00 너를 기억해 (11회)	00 화정 (31회)	00 상류사회 (15회)	45 달라졌어요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헐크>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방학 특선 글로벌 다큐멘터리 5부작 인간과 우주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MBC 다큐스페셜	15 힐링캠프 500인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30 우리 생애 마지막 여름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 2.0 (재)	15 MBC 뉴스 24 3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50 스포츠 특선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EBS 인문학 특강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5회) (재)		35 식샤를 합시다 2 (2회)			◆ 해외야구 LAD vs 뉴욕M (02:10) 워싱턴 vs 피츠버그 (02:35) 텍사스 vs LA에인절스 (04:35)
19시	55 JTBC 뉴스룸	40 리틀빅 히어로 (38회) (재)		00 나는 자연인이다 (17회)	20 미이라 2	
20시	50 JTBC 뉴스룸	40 명단공개 (73회)	00 오늘 뭐 먹지? (83·82회)	00 생존왕, 티라노사우루스		
21시	40 냉장고를 부탁해 (37회)	40 신분을 숨겨라 (12회) (재)	10 한식대첩 3 (10회)	00 <순간포착!위험한 동물들> (6회)		
22시			30 2015 테이스티로드 (23회)	00 사이언스 오브 데인저 (7·8회)	00 프란시스 하	
23시	00 비정상회담 (56회)	00 신분을 숨겨라 (13회)	30 오늘 뭐 먹지? (25회)	00 <사상 최악의 참사> 뭄바이 연쇄테러		
24시	30 화이트 스완 (9회)	20 코미디 빅리그 (130회) (재)	15 MAPS (5회)	00 나는 자연인이다 (17회)	00 하드데이	

강정호, 7경기 연속 안타 '물오른 타격감'

추신수, 1타점·1득점으로 팀 승리 견인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8)가 7경기 연속 안타 기록으로 쾌조의 타격감을 이어갔다.

강정호는 26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 경기에서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3타수 1안타에 몸에 맞는 볼로 두 차례 출루했다.

이날 경기에서 강정호는 밀워키 브루어스에서 이적한 아라미스 라미레스에게 3루수 자리를 내주고 유격수로 자리를 옮겼다.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며 물오른 타격감을 자랑했다. 시즌 타율은 0.289(258타수 74안타)를 유지했다.

강정호는 2회말 1사에서 맞은 첫 타석에서 워싱턴 선발 지오 곤살레스의 3구째 직구(148㎞)를 잡아당겨 좌익수 왼쪽에 떨어지는 안타로 연결했다.

4회말 2사에서는 풀카운트 승부 끝에 1루수 파울플라이로 물러났다. 이어 6회말 2사 3루에서는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다. 그러나 후속타가 나오지 않아 득점은 이루지 못했다.

강정호는 9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워싱턴의 4번째 투수 태너 로어크의 4구째 몸쪽 직구(148㎞)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피츠버그는 이날 워싱턴에 3-9로 패했다.

한편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는 안타 대신 타점과 득점으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열린 로스엔젤레스 에인절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추신수는 7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 1볼넷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왼쪽)와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 /AP 연합뉴스

추신수는 2회초 에인절스 좌완 선발 헥터 산티아고의 4구째 시속 92마일(148㎞) 싱커를 공략했지만 투수 앞 땅볼로 물러났다.

4회초에는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걸어 나간 뒤 라이언 루아의 2루타 때 쏜살같이 달려 홈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또한 8회초 무사 1, 3루에서는 바뀐 투수 조 스미스의 시속 89마일(143㎞)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쳤지만 1루수 땅볼로 돌아섰다. 1루수는 병살을 노리고 2루로 송구했지만 1루 주자는 진루에 성공했고, 3루 주자는 홈을 밟았다. 추신수의 시즌 45번째 타점이다.

텍사스는 8회초 추신수 후속 타자들의 잇따른 적시타로 2점을 더 뽑아 7-6 역전에 성공했다.

추신수는 22일 콜로라도 로키스전부터 시작한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멈췄다. 시즌 타율은 0.235에서 0.232로 낮아졌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유망주' 성은정, US 여자주니어 우승

박인비·김인경 등 우승한 대회

한국 여자골프의 유망주 성은정(16·금호중앙여고·사진)이 US 여자주니어 골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성은정은 26일(한국시간)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털사CC(파70·607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결승전에서 엔젤 인(미국)을 3홀 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36홀 매치플레이로 열린 이날 결승에서 성은정은 첫 홀을 내줬으나 이후 2, 3, 4번 홀을 연달아 따내며 순조로운 출발을 이어갔다.

11, 12, 14번 홀에서 연달아 버디를 낚으며 5홀 차까지 간격을 벌렸다. 이후 성은정은 결국 34번째 홀을 따내면서 다시 3홀차를 만들어 남은 35, 36번째 홀 결과에 관계없이 우승을 확정했다.

이 대회는 1949년 창설돼 올해로 67회째를 맞이한다. 2002년 박인비, 2005년 김인경 등 현재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정상급 선수들이 우승한 바 있다. 2012년에는 호주 교포 이민지가 정상에 올랐다.

성은정은 지난해 7월 US 여자아마추어 퍼블릭링크스 골프대회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그는 "퍼트가 좋지 못했으나 아이언샷이 매우 좋았다"며 "대회장이 비교적 짧은 코스라 아이언샷이 잘 되면서 버디를 많이 잡았다"고 우승 요인을 분석했다.

한편 성은정은 다음주 캐나다 여자아마추어 챔피언십과 8월 초 US 여자아마추어 챔피언십에 참가할 예정이다. /장병호 기자

스페인-이탈리아, 러 월드컵 예선 격돌

네덜란드·프랑스, 잉글랜드·스코틀랜드도 같은 조 편성

유럽의 강호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 지역 예선에서 맞붙게 됐다.

26일(한국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대륙별 예선 조 추첨 결과 스페인(국제축구연맹 랭킹 12위)과 이탈리아(17위)가 같은 조에서 본선 진출 경쟁을 펼치게 됐다.

유럽 지역 예선은 9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각 조 1위가 본선에 직행하고 조 2위 국가 가운데 성적인 좋은 8개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승리한 4개 나라가 본선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속한 G조는 두 나라 외에도 알바니아(36위), 이스라엘(51위), 마케도니아(105위), 리히텐슈타인(147위)으로 구성됐다.

A조에서는 네덜란드(5위)와 프랑스(22위)가 치열한 조 1위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A조에는 스웨덴(33위), 불가리아(68위) 등도 포함돼 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국 독일(2위)은 체코(20위), 북아일랜드(37위), 노르웨이(67위), 아제르바이잔(108위), 산마리노(192위)와 함께 C조에 들어갔다.

잉글랜드(9위)와 스코틀랜드(29위)는 나란히 F조에 편성됐다. 두 나라가 월드컵 지역 예선을 같은 조에서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병호 기자

국제축구연맹 제프 블래터 회장(오른쪽)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26일(한국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대륙별 예선 조 추첨에 참석했다. /AP 연합뉴스

최홍만, 5년 만의 복귀전 '참패'

5년여 만에 종합격투기(MMA)로 돌아온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35·사진)이 1라운드 KO패로 뼈아픈 패배를 맛봤다.

최홍만은 25일 일본 도쿄의 아리아케 콜로세움에서 열린 로드FC 24 대회의 무제한급 경기에서 일본계 브라질 선수인 카를로스 도요타(43)를 상대로 1라운드 KO패를 당했다.

이날 경기는 2009년 10월 미노와 이쿠히사전(서브미션 패) 이후 5년 9개월 만의 복귀전이었다. 이날 패배로 최홍만의 MMA 통산 전적은 2승 4패가 됐다.

도요타는 케이지를 넓게 쓰며 기회를 엿봤다. 최홍만 역시 좀처럼 주먹을 뻗지 않았다.

1라운드 1분이 지났을 무렵 두 선수가 펀치를 교환하기 시작했다. 몇 초 되지 않는 난전에서 도요타의 펀치가 최홍만의 안면에 적중하자마자 최홍만은 쓰러졌다. 도요타가 쓰러진 최홍만에게 곧바로 파운딩을 퍼부었고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켰다.

이번 대회는 한국 최대 MMA 단체인 로드FC가 해외에서 치른 첫 이벤트다. 모든 경기가 한일전으로 꾸려졌다.

미들급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후쿠다 리키가 전어진을 1라운드 파운딩 KO로 꺾고 3대 챔피언에 올랐다.

'비운의 유도왕' 윤동식은 다카세 다이쥬와의 88㎏ 계약체중 경기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부산 중전차' 최무배도 가와구치 유스케를 KO로 꺾었다. /장병호 기자

여름철 '더위병' 예방과 치료

건강레이더

한 여름 무더위에 걸리기 쉬운 질병은 더위 먹은 병 즉 '주하병'이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땀이 많아서 날씨가 더우면 특히 땀으로 수분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몸 속 진액이 쉽게 부족해지면서 원기가 허해지는 증상을 나타낸다.

더운 날씨에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가 몸이 축 늘어져 있고 걷다가도 다리에 힘이 없다며 안아달라고 하면 '주하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가슴도 답답하기 때문에 자주 하품을 하고 입맛도 떨어진다.

주하병에는 인삼과 황기 등 기운을 돋워주는 약재가 들어있는 보중익기 탕과 같은 처방을 주로 쓴다.

둘째로 많은 병이 더위 맞은 병 즉 '서병'이다.

'서병'은 몸에서 열이 나면서 식은땀이 나고 몸이 마르면서 얼굴이 때가 낀 것처럼 얼룩덜룩해진다.

'서병' 중에 특히 중서는 말 그대로 더위를 직접 몸에 맞은 것으로 열이 오르면서 식은땀이 흐르고, 두통 또는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손발은 차고, 심할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증상으로 '열사병'에 해당한다.

이럴 때는 응급처치로 아이를 서늘한 곳으로 옮겨 옷을 벗긴 뒤 체온을 떨어뜨려야 한다. 열이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찬물이나 얼음 마사지를 해주고 신속히 병원으로 옮긴다.

'서병' 예방은 기를 보충해주는 생맥산을 수시로 복용하고 맥문동, 인삼, 오미자를 각각 2:1:1의 비율로 보리차처럼 만들어 수시로 먹이면 좋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Cheil Fabric About to Merge 'Deficit Transition'

<합병앞둔 제일모직 '적자전환'>

The second half result of Cheil Fabric which is about to Merge with Samsung C&T Corporation, has showed deficit transition.

Cheil Fabric has announced on the 22nd that the 2nd quarter sales benefit was 39 million 72 thousand dollars which is 40.1% less than last year. Along with this, Cheil Fabric has opened the general meeting and had decided to purchase 2.5 million stocks of its company.

Therefore, Cheil fabric is planning on purchasing 2.5 million common stocks from the 24th of this month to October 23rd.

The closing price on the 22nd of last month which was the day before the general resolution day is 440 million dollars.

/파고다어학원 Chris Kim(김윤관) 강사

삼성물산이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정한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과 합병을 앞둔 제일모직의 2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했다.

제일모직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90억72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1% 감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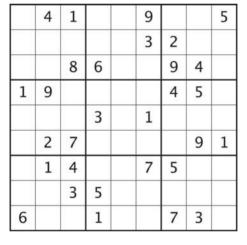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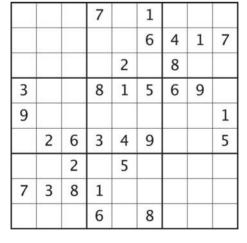
제일모직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250만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은 24일부터 오는 10월23일까지 보통주식 250만주를 장내 매수할 예정이다. 이는 이사회 결의일 전날인 지난 22일 종가(17만6000원) 기준으로 4400억원 규모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4	1			9			5
					3	2		
		8	6			9	4	
1	9					4	5	
			3		1			
	2	7					9	1
	1	4			7	5		
		3	5					
6			1			7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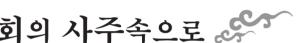
			7		1			
					6	4	1	7
				2		8		
3			8	1	5	6	9	
9								1
	2	6	3	4	9			5
		2		5				
7	3	8	1					
			6		8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7	4	1	8	2	9	3	6	5
5	6	9	7	4	3	2	1	8
2	3	8	6	1	5	9	4	7
1	9	6	2	7	8	4	5	3
4	8	5	3	9	1	6	7	2
3	2	7	4	5	6	8	9	1
8	1	4	9	3	7	5	2	6
9	7	3	5	6	2	1	8	4
6	5	2	1	8	4	7	3	9

8	6	4	7	3	1	2	5	9
2	9	3	5	8	6	4	1	7
5	7	1	9	2	4	8	3	6
3	4	7	8	1	5	6	9	2
9	8	5	2	6	7	3	4	1
1	2	6	3	4	9	7	8	5
6	1	2	4	5	3	9	7	8
7	3	8	1	9	2	5	6	4
4	5	9	6	7	8	1	2	3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구조조정에 불안… 계속 다닐수 있을까요? 미리 퇴사하지 말고 묵묵히 소임 다 하시길

옥상달빛 여자 73년 5월 14일 양력 17시20분

Q 독자입니다. 현재 직장에 17년째 다니고 있는데 작년부터 회사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부서가 재편되고 그 사이 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저도 오래 근무한 사람 축에 끼는데 어찌 될는지 하루하루 눈치 보며 다니는게 힘이 드네요.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며 십여 년을 같이 살다시피 하였는데 더 편해지지는 않고 점점 부딪치는 일이 많아져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몸이 피곤하니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짜증만 느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풀리는 일도 없는 듯 하여 어찌해야 할지요.

A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물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고 평생을 그냥 별 진전 없이 살다가는 삶이 있고 고생 끝에 낙이 있듯이 반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력만으로 풀리지 않는 고단한 인생사로 고뇌를 합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도 있지만 귀하는 생일지(生日支)에 괴강(치우치는 성정)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즉각 표현하는 기질이 있으며 신의가 강하고 정의로운 성격입니다.

충살(沖殺:충돌함)과 백호살(白虎殺)이 중중(重重)하고 귀문(鬼門)이 작용하고 있어 비약적인 발전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에 해당한 가족관계, 직장이나 직업상 문제는 그것이 운에서 어떻게 길흉의 오행이 오는 가에 따라 상황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60갑자(甲子)조화 속에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운의 시험대에 놓입니다. 하지만 사주팔자를 뛰어넘는 가치가 있습니다. 운이 미약하고 잘 풀리지 않는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신실(信實)하면 상황을 극복하게 됩니다. 남의 탓하지 않고 자신의 허물을 되돌아보면 설사 큰 운이 없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기회가 오는 것이 반전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활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관상학과 명리학 대가들은 겸손함을 마음에 새기라고 충고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묵묵히 소임을다하고 본분을 지키며 남을 배려하면 곧 자신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시모께서 아이를 봐주는 것에 성의와 고마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조정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지만 미리 사퇴를 하거나 사기저하가 되어 위축 되거나 자조 감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지면상 다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27일 (음 6월 12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나쁜 운을 가히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60년생** 좋은 사람이 찾아와 도와줄 것입니다. **72년생**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시도하세요. **84년생** 마음에 두고 있는 계획을 완성하도록 하세요.

49년생 재물이 창고에 가득합니다. **61년생** 이르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73년생** 백 가지 일을 가히 이루게 됩니다. **85년생** 주변의 친구가 귀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겠습니다.

50년생 한 때는 괴로움을 겪을 것입니다. **62년생** 자식에게 나쁜 일이 생기니 미리 예방하세요. **74년생** 애정운이 불리합니다. **86년생** 재물이 집에 들어오지만 반은 잃고 반만 남은 격입니다.

51년생 조상을 잘 모셔야만 나쁜 일을 면합니다. **63년생**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하도록 하세요. **75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으니 밀고 나아가세요. **87년생** 여행은 길합니다.

용

52년생 남방향이 길방입니다. **64년생** 얹혔던 속이 시원하게 되는 때입니다. **76년생** 진취적인 기운이 주위를 가득 돌고 있습니다. **88년생** 여러 사람과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뱀

53년생 사업운을 더욱 상승시켜 줍니다. **65년생** 금전 운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77년생** 금전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89년생** 기다리던 사람이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54년생 길하지 못한 일들이 따를 것입니다. **66년생** 금전거래에 참여하는 일은 좋지 않습니다. **78년생**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90년생** 귀하의 입지는 더욱 단단하게 될 것입니다.

55년생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67년생** 잘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하세요. **79년생** 술자리를 최대한 피하세요. **90년생** 몸을 따르는 운이 막히는 듯하니 마음에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56년생 일을 해도 허무한 마음만이 남게 됩니다. **68년생** 귀인이 동쪽에서 기다립니다. **80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어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92년생** 구설수에 휘말리게 됩니다.

57년생 밖으로 나가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69년생** 신중한 행동을 하면 복이 옵니다. **81년생** 금전거래를 주의하세요. **93년생** 항상 기다려 보세요.

58년생 상황이 자연스럽게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70년생** 끝이 없고 감이 분명치 못합니다. **82년생** 마음이 매우 심란합니다. **94년생** 평소 관심있는 이성에게 데이트신청을 받게 됩니다.

59년생 깊이 개입하려 들면 어려워집니다. **71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83년생** 금전운이 매우 좋습니다. **95년생** 기분좋은 약속을 잡게 됩니다.

국정원 해킹 사태, 5163부대 명칭부터 문제

정용해
한결미래정치연구소장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의심받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불법개입 의혹에서부터 이번에 불거진 불법 도·감청 의혹까지,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의혹들이 불거졌다. 국정원의 도·감청 의혹은 특히 선거를 목전에 두고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욱더 충격을 줬다.

국정원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력을 갖고 있는 국정원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 문의하고 실질적 구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불법 선거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이러한 해킹 프로그램을 간첩수사용, 또는 대북용으로 구매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사실을 은폐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대북·간첩용이라면 카카오톡 해킹 기능은 왜 필요했을까. 또 국내용 스마트폰인 갤럭시에 대한 해킹은 왜 필요했을까. 국정원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 해킹사태에서 더욱 놀라운 점은 국정원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사용한 '5163부대'라는 명칭이다. 1961년 5·16 쿠데타 때 박정희 당시 육군 소장이 공수부대를 이끌고 한강을 건넌 시간이 새벽 3시라 '5·16·3'이 됐다는 것이다. 이 명칭의 유래에 대한 가장 유력한 설이다.

역사적 또는 정치학적으로 5·16은 이미 군사쿠데타로 정의 내려졌다. 그런 역사적 사건을 인용해 부대명칭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국정원은 불법적 또는 시대 회귀적 행위를 하고자 했음을 짐작케 한다. 상황이 이러니 '유신의 망령'이란 질타가 곳곳에서 쏟아지는 것이다.

군사 독재정권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그 위에 세워졌다. 특히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 비판에 대해 수많은 감시체널을 동원,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았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수차례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그저 감시방법만 바뀌었을 뿐이다.

국정원은 6100부대, 6260부대, 5180부대, 4190부대 등 민주화 관련 기념일을 국정원의 부대명칭을 쓰면서 국민의 전화기를 불법 도·감청하기에는 양심이 찔렸던 모양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양심으로 국민인권 탄압의 출발점이었던 5·16쿠데타를 상징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애써 갈음해본다.

국정원 해킹 사태는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현 정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밝혀내는지 우리 모두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검찰, '고압 검찰' 닉네임도 추가 되나?

기자 수첩
유 선 준
<사회부 기자>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하는 내내 욕만 안할 뿐이지 고압적으로 다그치고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 건 여전하더군요."

최근 의뢰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갔던 모 변호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변호사는 아직 의뢰인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인데 검사가 벌써부터 의뢰인을 강압적인 방식으로 조사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기자도 변호사의 첫 말을 들었을 땐 '인권이 제일 중요시 되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인가'며 의아스러워했지만 이내 변호사의 말을 수긍했다. 몇달 전 기자가 일을 쉬고 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돌아가신 부친의 채무와 관련해 검사와 전화통화를 했을 때 검사가 기자에게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며 협박했다. 당시 기자는 사건에 대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계속되는 검사의 다그침에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다. 좋게 해결을 봤지만 그 때 일만 생각하면 뒷맛이 개운치 않다.

근래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21.6%의 신뢰를 얻은 시민단체가 1위를 한 반면 군대(3.4%)와 검찰(3.2%)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도 죄를 뒤집어 씌울까봐 검경 청사를 웬만하면 지나치지 않는다"고 우스갯소리도 한다. 군사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됐던 검찰의 폭압수사 잔재가 고압적인 수사 분위기로 이어져 검찰 불신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법조인들도 꽤 많다.

'떡값 검사' '벤츠 여검사' '로스쿨 검사 성추행' '모 전 검찰 총장 혼외자 파문' 사건 등 안그래도 국가 이미지를 금직하게 실추시킨 사건들이 주기적으로 터져왔는데, 고압적 분위기까지 사실이라면 국민이 검찰을 신뢰할래도 신뢰할 수 없을 듯하다. 살인범들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수사 때 죄인 다루듯이 하지말라는 마당에 하물며 단순 조사를 받는 일반시민까지 고압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을까.

검찰과 함께 신뢰도에서 꼴찌한 옆동네 해병대도 며칠 전 '해병은 해병을 때리지 않는다'는 신조를 제정했다고 한다. 인권이 수호되는 사회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겁을 줘 '고압 검찰'이란 닉네임까지 얻지 말자.

社說

사이버자유와 사이버안보의 조화

국가정보원의 국민사찰 의혹에 대한 국회 조사가 이번주 시작된다. 국회가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및 안전행정위,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가 모두 나서서 진상조사 활동을 벌인다. 특히 국정원이 자살한 직원이 삭제했던 파일을 복구해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사가 정식 청문회나 국정조사는 아니지만, 사실상 청문회 수준으로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근거없는 의혹제기가 사이버안보를 위협하는 억지공세라며 방어할 작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번 조사로 의혹이 시원하게 해소될지는 정말 의문이다. 그동안 굵직한 현안이 생길 때마다 국회 차원에서 조사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제대로 규명된 일은 별로 없다. 의혹은 안개에 싸인 채 정쟁만 거듭하다가 유야무야되곤 했다. 이 문제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자신들의 주장만 늘어놓고는 진실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나 자료를 온라인에 띄울 경우 어디선가 들여다볼 것이라는 걱정이다. 야당이 이번에 해킹의혹의 진상을 규명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데는 이런 피해의식이 깔려 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그런 피해의식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반면 여당 주장대로 국정원의 활동이 정말로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면 그 고유기능을 지켜줘야 마땅하다. 요즘처럼 인터넷에서 온갖 정보가 난무하고 해킹을 통해 적국의 정보를 훔치는 것이 과거에 비해 훨씬 쉬워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번 조사를 통해 진상을 확실하게 파악해 국민의 피해의식을 불식시키고 사이버안보도 강화해야 한다. 사이버자유와 사이버안보를 조화롭게 양립시킬 기틀을 확립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진정한 사이버선진국이 될 수 있다.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진지하게 논의하면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이사 물품 파손, 보상 받으려면

생활 법률

이사를 하다 보면 이사 업체와 예기치 못한 분쟁이 생길 때가 있다. 이사 과정 중이나 이사를 하고나서 물건이 파손돼 있을 때 업체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어떤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할까. 우선 해당 물건이 파손된 경우 이사 업체에 연락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이사 업체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사 화물의 멸실·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한다. 이사계약 체결 후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꼭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이사 업체와 계약할 때 중요 물품 목록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를 업자에게 꼭 확인시키고 날인을 받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계약 체결시 전화 계약이 아닌 서면 계약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사 현장에서 물품의 파손·분실이 일어났을 경우 즉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업체에 받아야 한다. 파손된 물품을 사진 촬영하는 것도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럼에도 만약 이사 업체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해 처리를 의뢰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부당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가요금 요구나 파손시 배상 방법 등을 기재해 두는 것도 좋다. 또 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이나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면 피해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홍원 기자 hong@

인 사

■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충청북도 부교육감 정병걸 △전라남도 부교육감 선태무 △국립국제교육원장 김광호
■ 보건복지부
▷국장 승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강완구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승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서갑종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조기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무영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광호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 양창숙 △운영지원과장 우영택 △통합식품안전정보망구축추진단 정보기술운영팀장 김영남 △식품영양안전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김솔
■ 통일부
▷고위공무원단 승진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 강종석 ▷과장급 전보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장 최영준 △통일정책실 이산가족과장 하무진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장 서정배 △교류협력국 인도개발협력과장 손송희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제도개선팀장 최병환 △남북회담본부 회담3과장 윤현중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장 배윤수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장 소봉석 △통일교육원 지원관리과장 김정노
■ 행정자치부
▷국장급 승진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고위공무원 김명선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부이사관 문금주 △협업행정과장 서기관 서주현 △주민과장 서기관 황상규 △주소정책과장 부이사관 김종한
■ 국립중앙과학관
▷과(팀)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김동섭 △시설창조관리과장 정동찬 △교육문화과장 이동방 △전시기획과 전시관운영팀장 윤용현 △경영기획과 홍보마케팅팀장 김승주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진료처장 금기연 △기획조정실장 명훈 △교육역량개발실장 권호범 △홍보실장 현홍근
■ 한겨레신문
△편집국 탐사기획팀장 고나무

기사제보=02)721-9832

국내최초 윈덤본사와 기술 자문 및 책임 **TSA** 약정체결!

"2천만원" 만 있으면!

수익안심보장제도
- 계약즉시 수익지급!!
- 5년 후 원분양가+α 환매조건 분양

5년후 원금보장 +α까지 되는 호텔
객실당 실투자 2천만원대

강원라마다호텔&리조트에
'테디베어 올림픽테마파크' 개관 예정

※상기조감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제휴사 고정고객 확보	분양가 9천만원 실투자 2천만원대	**3년 수익금** 약 2,400만원 **즉시 지급**	5년후 원분양가 환매보장	잔금납입 즉시 이전등기 계약즉시 수익발생	국내 체인 라마다호텔 연10일 무료이용

테디베어 MOU

여행사 MOU

태백 레이싱파크 MOU

올림픽파크 전시관

청약방법
청약금 : 100만원 [외환은행 630-009601-061]
예금주 : (주) 생보부동산신탁 ※미 계약시 청약금은 전액 환불됩니다.

| 운영자문 (주)산하HM | 자금관리 SAENGBO 생보부동산신탁 |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주)도모건축 | 시행사 (주)월드스포츠

※생보부동산신탁은 상기 '수익금 지급 및 관리' 와 무관합니다.

■대지위치 :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24-10 외 ■대지면적 : 7,186㎡(컨벤션 및 기타부지 제외) ■건축규모 : 15,133.58㎡ (지상면적 14,186.06㎡ / 지하면적 947.52㎡) ■시설규모 : 객실 305실, 10개동(동당 30~31실)
■객실타입 : Standard 177실, Deluxe 90실, Suite 28실, 단체실 10실(총 305실)

분양문의 02)756-2000